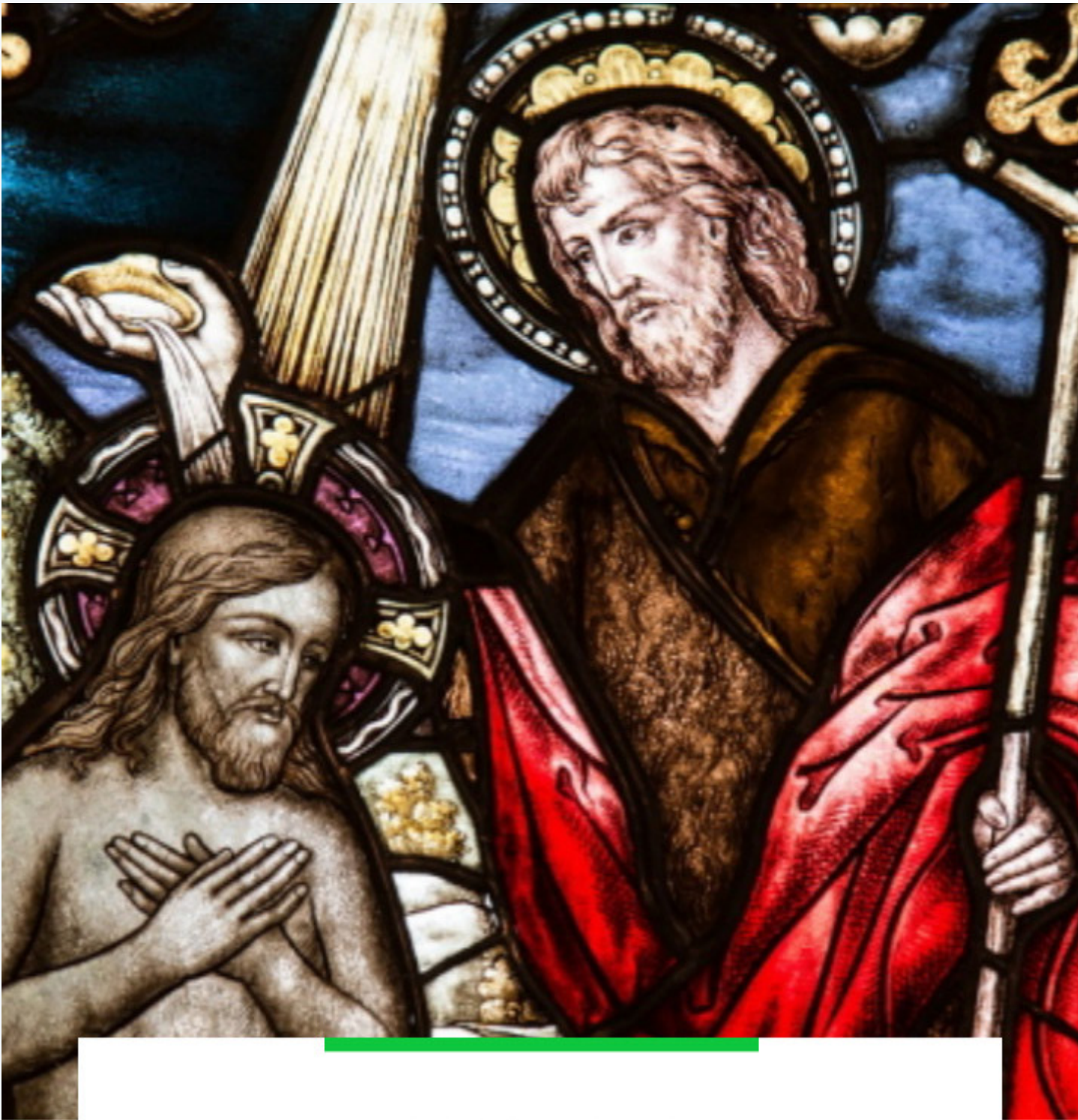




데이빗 영맥주석

요한복음

David Spiritual Commentary

요한복음

'데이빗 영맥주석'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주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영맥주석'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쭙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권해 드립니다. 이 주석으

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성경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석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귀한 주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을 통해 성경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데이빗리 목사

요한복음 1장 =====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아르케>는 창세기 1:1에 나오는 ‘태초에’<레쉬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태초’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을 의미합니다. ‘말씀’<로고스>는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1절 하)는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3절 상)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은 전혀 창조 사역에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에 보면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가리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창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되기 전의 상태가 ‘혼돈’<토후>, ‘공허’<보후>, ‘흑암’<호세크>이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 사역에 함께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조 사역에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역을 직접 행사하

시는 분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직접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구원 사역을 설명할 때 '태양'의 비유를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태양'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양을 빛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돕습니다.

바울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고전 12:4-6)라고 언급하였듯이 역사와 직임과 은사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리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 6: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 1: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은 극과 극입니다. 서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뜻을 가질 수도 없고 함께 공존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빛과 어둠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후 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후 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후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빛과 어둠이 사귀 수 없는 것은 성전과 우상이 일치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거하지 못합니다. 약한 빛이라 할지라도 어둠을 물리칩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어둠을 물려나게 합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빛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어둠을 사랑하기 때

문에 빛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둠에 거한 사람들입니다.

[요 1: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 1:7]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 1: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 1: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께서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미리 예비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지간의 사람이었으며 나이드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지간이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지간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성령에 힘입어 임신하였음을 증거하

였는데 '친족 엘리사벳'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눅 1:36]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정확하게 어떤 친족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가 친족 지간임은 분명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6개월 정도 빨리 임신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나이가 예수님보다 6개월 빠른 셈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선지자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도 예수께서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한 것보다 수개월 빠른 정도입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도 세례 요한이 먼저였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설교를 전한 것도 세례 요한이 먼저였습니다. 물론 죽음도 세례 요한이 먼저 죽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10년 혹은 30년 앞서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1년도 채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 활동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먼저 선지자 사역을 행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토록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는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 스스로 아들에 대한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눅 1:76]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눅 1:77]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 1: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 1: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며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것이며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질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롬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혈통’은 헬라어 <하이마>로서 ‘피(blood)’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모님을 통해 가족관계가 형성되듯이 만들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됨은 이러한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육정’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감정이 뒤섞인 인간의 ‘의지’와 ‘뜻’을 말하며 ‘사람의 뜻’은 이성과 지식을 통한 이해관계를 통해 형성된 관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뜻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 전에 이미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
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
리킴이라 하니라

[요 1: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
께 계셨습니다. 마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
처럼 그렇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이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
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보잘것없
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
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 2:7] 오

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14절)고 말하였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시라고 증거하였습니다.

“[히 1: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을 더 깊게 하면 할수록 더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후 4: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요 1: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출 20장).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는 자는 예수님을 보다 잘 알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에 대

해서 잘 알아가는 것이 진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는 진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18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친히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요 1: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 1:20]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요 1:21]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 1:22]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요 1:23]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인기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말라기 이후부터 세례 요한까지의 기간은 무려 4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기다려왔겠습니까? 물론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지는 않았겠지만 크고 작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말라기 이후에 성경 말씀이 없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의 부재의 시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400년을 가리켜 '영적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의 공백을 깨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으니 그의 인기는 매우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식이 로마까지 전해지는 시간은 대략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 세례 요한의 소문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스스로 "내가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부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부여받은 사명에 대해 백성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23절)고 고백했습니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메시아'다 '엘리야'라고 믿고 있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종에 불과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자신의 사명을 잘 완수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할 때 주님께서 평탄한 길을 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을 때 주님은 또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할 것입니다.

[요 1:24]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요 1:25]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 1:26]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요 1:27]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 1:28]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벳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주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마 3:11]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

십니다. 성령 세례는 세례받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은혜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언제나 함께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세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보다는 성령 세례가 더 강력한 것이고 성령 세례보다는 불세례가 더 강력한 것입니다.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확증하는 의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세례 없이 물세례만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저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사도행전 19장 참조). 그랬더니 저들에게 방언이 임하였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불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불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서로 다른 차원의 세례입니다.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

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애굽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살아 있는 것의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자의 죽음을 모면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어린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도 주님의 피 앞에서는 어

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양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 1:31]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 1:32]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 1: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요 1: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즉시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

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님께서 그 위에 내린 것을 봄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는 음성은 예수님 홀로 들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음성을 사람들이 다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줄 모두 알았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 1: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 1:36]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고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말했던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알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의 대부분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랬으며 요한과 야고보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부러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본인 스스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고백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제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린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도 주님의 피 앞에서는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양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 1: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요 1:38]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
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요 1:39]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

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십
시쯤 되었더라

[요 1: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
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 1:41]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
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
면 그리스도라)

[요 1:42]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
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
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좇아오는 두 제자를 향해 "무엇을 구하
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두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시
오니이까"라고 여쭙습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
은 대화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풍습에서 기인
한 대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승을 찾거나 인생의
해답의 지혜를 얻고자 할 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
이까?"란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들의 말
의 뜻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는 저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뒤따르는 두 사람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와 보라(Come & See)"는 전도의 핵심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전도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제일 처음 전도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곧바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고기를 많이 잡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입니다(요한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일부러 거론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안드레의 형제는 베드로였고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었는데 저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모였습니다(요 19:25 참조). 결국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친척 지간인 셈입니다. 또한 안드레와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의 친척

인데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야고보와 요한의 집에 함께 거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더군다나 12제자 중의 작은 야고보와 유다(다대오)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알패오(히브리 이름으로는 글로바)의 아들이었습니다. 알패오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였습니다. 알패오가 죽은 후에 예수님 가정에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마태와 도마 역시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은 안드레나 베드로와 매우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오직 두 사람(시몬, 가롯 유다)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을 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혈연과 지연으로 얽혀진 사람들입니다.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돌로매입니다. 12제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요 1:43]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 1: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새다 사람이라

[요 1: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

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 1:46]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증거 하였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46절)고 반응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의 이러한 반응은 선입견입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지극히 작은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이 위치한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지역은 매우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앗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들어와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마리아 땅보다는 유대인의 갈릴리 지역에 대한 편견이 적은 편이지만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 땅만이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의 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갈릴리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의 반응은 선입견입니다. 이러한 선

입견은 쉽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선입견은 혼적인 반응입니다. 누구든지 혼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요 1: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 1:48]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요 1: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 1: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요 1:51]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직접 제자를 찾으

셨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지만 예수께서 직접 베드로를 다시금 제자로 만들기 위해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지만 예수께서 다시금 나다나엘을 만나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47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 하거나 똑똑한 사람을 제자로 삼기 원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우선시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 주로 실패합니다. 사람들 스스로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전도하면 실패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주님에 대해서 간증했지만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으로 전도할 때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전도하시면 성공적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만났을 때 베드로는 곧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은 곧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숨은 제자들도 있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전도할 때는 성공적이지 못하고 주님께서 전도하실 때는 성공적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주님과 사람이 취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혼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지만 주님은 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때 사람들은 혼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할 때 사람들은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혼적인 유익함을 전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1.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Simon)'이라는 그리스식 이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게바(반석)'라는 아람어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게바라는 이름을 그리스어로 옮긴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으며 헤롯 아그립바(Herod Agrippa) 1세에게 붙잡혔다가 도망하여 소아시아와 안디옥 등지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네로에 의해 거꾸러 십자가형을 당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로마에 의해 초대교황으로 추대되었습니다.

2.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동생. 벧새다 출신의 어부이며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주님께 전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수석 3인 제자(베드로, 야고보, 요한)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북 그리스와 에피루스 등지에서 선교하다가 70년 경에 십자가 형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3. 야고보(세배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 요한은 형제입니다. 베드로, 요한과 함께 수석 3명의 제자에 포함되었습니다. 44년경 헤롯 아그립바 1세에 의해 최초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헤롯 아그립바 1세는 교회수장인 야고보(예수님의 동생)를 잡아오라고 지시했는데 군인들이 엉뚱한 야고보를 잡아와 죽게 했습니다.

4. 요한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는 안드레와 함께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갈릴리 어부로서 세배대와 살로메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며 예수님의 마리아와 친척지간입니다.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5. 빌립

‘빌립’의 이름은 ‘투쟁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시 벳새다 지역의 어부였으며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친구 나다니엘(바돌로매)을 예수님게로 인도하였습니다.

6. 바돌로매

빌립에 의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로서 '나다니엘'과 동명이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요1:45).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이디오피아, 인디아, 페르시아 등지에서 사역을 했고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7. 도마

'쌍둥이'를 뜻하는 아랍어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유다로 돌아가려고 하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요 11:16)라면서 용감하게 나섰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뵈지 않고는 스승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고집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뵈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 20:28)고 고백하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카스피해와 페르시아만 중간지역에서 사역을 했으며 멀리 동인도까지 사역을 했다고 전해진다. 위경으로 '토마스행전'이 있습니다.

8. 마태

알패오의 아들이며 레위라고도 합니다. 본래는 세리(稅吏:세무관리)로서 가버나움 지방에서 근무하였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디오피아에서 사역하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태복음의 저자이다.

9. 야고보(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다. 알패오의 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나, 알패오가 요셉이 형제였고 알패오가 죽은 후에 요셉에 의해 거둬드린 자녀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그의 키가 작기때문에 그리 불렀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이끌어갔던 수장이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진 후 곤봉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10. 유다

유다에게는 별명이 있었는데 '다대오'라고 불려졌습니다(마 10:3, 막 3:18). 그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가롯유다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유다서'

의 저자입니다. 주로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 등지에서 사역을 했으며 시몬 등과 함께 페르시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1. 시몬

예수님의 12제자 중 대부분이 갈릴리지역 사람인데 시몬과 가롯유다만이 다른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가롯유다는 가롯인이었고 시몬은 가나안인이었습니다(마 10:4). 그는 젤롯당원(혁명당, zealot)으로서 이스라엘 해방운동을 벌여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기대했던 자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톱으로 육신이 두 동강이 나는 형벌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12. 가롯 유다

예수님을 은 삼십세겔에 팔아넘겼던 장본입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지만(마 27:5) 주님께서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 하였더라면 제게 좋을뻔 하였느니라"(마 26:24)고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 장 =====

[요 2:1]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요 2: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에 청함을 받았더
니

[요 2:3]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
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요 2:4]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요 2:5]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 2:6]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일
을 행하셨는데, 바로 세례를 받는 것과 마귀의 시험
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드디
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의 시
작이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는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 잔치였으며 초대를 받아 그곳
에 가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을 비롯하여 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 잔치에는 제자들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게 된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란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무례한 칭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호칭하신 '여자'라는 말은 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였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 마리아에게 국한된 말씀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어머니 마리아에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

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
때’는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 2: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요 2: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요 2: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
장이 신랑을 불러

[요 2: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요 2:11]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
라

[요 2:12]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집 마당에 돌 항아리를 놓았습니다. 그

리고 그곳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 물은 손과 발을 닦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가 열렸던 그 집에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두 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여섯 개나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인들이 여섯 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 항아리에는 두 세 통 정도의 물을 채울 수 있었고 그 양은 대략 100리터 정도나 되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이 어디에서 물을 길러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나라의 마을에 있는 우물과 같은 곳에서 물을 길러왔다고 친다면 적어도 한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10번 이상은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물을 길 때 사용했듯이 아마도 가나에서도 양쪽에 물동이를 들고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도구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모두 여섯 개의 돌 항아리였기 때문에 하인들이 물 길러 왔다 갔다 왕복한 횟수는 대략 60번 정도나 되었을 것입니다. 하인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인들이 그런 힘든 일을 했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할 줄 몰랐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그런 힘든 일을 했다는 것은 하인들에게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하인들은 노예라기보다는 오히려 잡일을 돕는 가족과 같은 그런 하인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친척으로부터 이런 힘든 일을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결혼 잔치가 있을 때는 너도나도 즐기는 때인데 그런 노동일을 달갑게 순종할 하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만이 많습니다. 간구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만이 많으신 것을 느낍니다. 우리들 중 하인처럼 제대로 된 순종심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치 순종해서 얻어질 응답들만 바라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 2: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요 2: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요 2: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요 2: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입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기인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와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키셨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모든 살아있는 것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그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실제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발랐던 집은 장자의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출 12:13]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

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이라는 뜻이 ‘pass over’라는 뜻으로 ‘넘어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해 아빍월(종교력 1월, 민간력 4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원래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 성전 안에서 장사가 허용된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주요 장사 품목은 성전세를 바꾸는 것과 제사 지낼 짐승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이나 먼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이 짐승을 준비해 올 수 없기 때문에 편리를 위해 성전 내에 장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장소로 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요 2: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휘방하는 휘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 69:9)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에 비유하여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제자들의 염려가 드러난 구절입니다.

[요 2:18]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요 2:1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 2:20]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요 2: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2:22]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밋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헐라고 말씀하신 '헤롯 성전'은 세상적인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의미를 두는 성전은 영적인 성전입니다. 모세 시대의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전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적인 성전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헤롯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세상적인 성전은 세상적인 정욕으로 세워진 성전이기 때문에 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헤롯 성전은 기원전 20년 쯤부터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을 가리켜 46년 된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원후 26년 정도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성전의 전체적인 윤곽은 기원후 9년 정도였지만 완공은 기원후 63년이었기 때문에 83년간이나 걸려

완공된 성전입니다. 하지만 기원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몸을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성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훌륭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웅장한 건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훌륭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요 2:23]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요 2:24]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요 2:25]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

나라

유월절에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단어가 '피스티아' <πιστια>가 아닌 '에피스테우온' <επιστευον>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표적을 보고 믿는다'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즉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잠정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이 표적에 의존한 일시적인 믿음임을 정확히 아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우 간사하고 기회주의적인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표적을 볼 때 믿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표적이 사라지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간사한 마음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생기는 잠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생기는 영원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자신을 의탁하십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함은 곧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권한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표적을 구하는 잠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막의 변천

모세의 성막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천국의 장막을 보여주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장막을 이 땅에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구약의 '성막(미쉬칸)'이라는 단어와 신약에 쓰인 '장막(스케네)'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장막'은 모세가 지은 '성막'의 원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에는 성막이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따로 떨어져 살면서 모든 행정도 지파별로 운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호수

아는 모세의 성막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지키지 못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거대한 영토를 약속하셨습니다.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차지했을 때에는 더 이상의 땅을 차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노예생활 해 왔던 저들의 문화가 가나안 땅도 거대한 영토로 생각들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영토를 빼앗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가 잘 지키지 못했던 것은 '성막'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에 단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

지만 그는 성막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성막을 잘 유지하지 못했으며 성막의 성물들은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예배하도록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졌던 성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갈의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성막은 길갈에 안치되었습니다(수 4:16, 5:10, 9:6). 길갈은 여리고 근처지역입니다. 전쟁때문에 우선 여리고와 가까운 길갈에 성막을 안치해 놓은 것입니다. 길갈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람이 많이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성막을 안치하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땅이 다른 땅에 비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실로의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했을 때 성막을 실로로 옮겼습니다(수 18:1). 실

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성막은 '여호와의 전'이라고 불려졌는데 이것은 장막이 아닌 건물을 뜻하였습니다(삼상 1:9).

“[삼상 1: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이때부터 성막은 더 이상 장막이 아니라 건물로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곳 저곳 옮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건물로 지어서 유지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성막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각 지파별로 행정의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예배처소도 만들어졌습니다(삿 18장 참조, 시 78:58). 비록 실로에 있는 성전이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성전이었지만 각 지역마다 사람들의 원함에 따라 예배처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로의 함락 이후의 성막

엘리 사사에 의해 운영되어져 왔던 실로 성전이 블레셋인들에 의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시 78:60-62). 실로가 함락되기 직전에 지성소에 위치한 언약궤는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적군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삼상 4:11).

“[삼상 4:11]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는 다윗때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약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언약궤가 있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길갈에 다시 세워진 성막

실로가 함락된 이후에 성막은 다시금 길갈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사무엘과 사울이 길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삼상 11:15).

“[삼상 11:15] 모든 백성은 길갈로 가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고 그를 왕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함께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

놉의 성막

다윗이 놉 땅에 있는 성막에서 진설병을 취하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삼상 21:1-6). 이러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아마도 성막은 길갈에서 놉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시대 때에 성막이 놉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기브온의 성막

또 다시 성막은 놉에서 기브온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쩌면 성막의 성물이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 때에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대상 21:29).

“[대상 21:29]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성막과 번제단이 그 당시에 기브온 언덕에 있었으나”

다윗성의 성막

다윗은 블레셋인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궁궐 옆에 장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하였습니다(삼하 6장 참조). 하지만 비록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안치되었지만 여전히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대상 21:29]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

은 여호와와 장막과 번제단이 그 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느냐”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러 기브온 산당을 찾아간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왕상 3:4).

“[왕상 3:4]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 유명한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와서 제사를 드린 것은 기브온 산당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다윗의 장막보다 더 좋아한 이유는 사람들이 기브온 산당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솔로몬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산당을 더 선호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립함으로써 모든 성막의 성물들은 전부 솔로몬 성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959년에 만들어져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기까지(기원전 586년) 대략 400년간 존속되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BC 516년에 완공 되었으며 바사 고레스 왕으로부터 유다총독으로 임명된 다윗의 후예 스룹바벨에 의해 건축됩니다. 외형이 왜소했으며 알렉산더 대왕 사후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루크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 심하게 짓밟혀졌습니다.

헤롯 성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 심하게 더럽혀지고 훼손된 성전을 이두매 족속이었던 헤롯이 유대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원래 매우 왜소한 스룹바벨 성전이었는데 헤롯이 엄청난 규모의 성전으로 호화스럽게 건축을 합니다. 80년간에 걸쳐 건축할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AD63년에 완공된 헤롯성전은 AD70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성전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떠한 건물에 계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행 7:4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오직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향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모세시대에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

늘날 모든 믿는 성도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각
영혼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
배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 장 =====

[요 3:1]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요 3: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그가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음을 말합니다. 산헤드린의 관원이면서도 예수님을 찾은 것은 그가 영적인 구원에 관심이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바를 몰약과 침향을 섞은 백 근(요 19:39)을 선뜻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요 19:39] 일찍 예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아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던 것은 표적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볼 때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되고 싶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표적이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듯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즐겨 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고전 1: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칭찬이 아닙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지혜를 찾는 것처럼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이 아닌 표적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표적 외에는 그 어떤 신앙을 찾을 수 없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표적이 없을 때 표적을 찾으러 떠나고 맙니다. 아내가 표적을 구할 때 남편과 살지 못합니다. 남편이 표적때문에 아내와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사랑은 표적때문이 아니라 믿음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표적을 보여줄지라도 그 표적이 당신과 하나님을 강하게 연결시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강력히 형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표적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야로 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선생)'라고 고백했습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생밖에는 안되었던 것입니다.

[요 3: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

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 3: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요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 3: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요 3: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은 물세례를 말하며 '성령'은 성령 세례를 뜻합니다. 성령 세례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일어납니다(롬 10:9-10).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과 일대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롬 5:1).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반면 물세례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게 드러내 보입니다. 마땅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물세례 의식을 받음으로 저들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성령 세례가 물세례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물론 물세례를 받은 후에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령 세례가 먼저 일어나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요 3: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요 3:1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꾸짖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많이 배운 자이고 부유한 자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도 갖춘 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었던 것은 그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비록 혼적으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육과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고전 2: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꾸짖으셨듯이 어쩌면 당신을 꾸짖으실지도 모릅니다. 마땅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혼적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하려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요 3: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요 3: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합니다. 물론 혼적인 사람도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의 아는 것과 본 것은 혼적인 사람의 아는 것과 본 것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영적인 사람의 아는 것과 본 것은 영적인 것이지만 혼적인 사람의 아는 것과 본 것은 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의 알고 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적인 사람의 아는 것과 본 것을 가리켜 “땅의 일”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땅의 일의 것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잘 안다 할 수 없는 것은 하늘의 것은 영적인 사람이라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혼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물론 육적인 사람도 만납니다. 이러한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은 도무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려고도 안 할뿐더러 오히려 영적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과 혼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고전 1: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전 1: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요 3: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 3:15]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
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8]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
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민수기 21:4-9에는 불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에 대한 형벌로 뱀을 보내셨고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
어 장대 위에 매달아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게 하셨
습니다.

주님께서도 뱀처럼 들려져야 함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요일 3:8). 성경에서 마귀는 '뱀'으로 상징됩니다. 뱀에 의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었던 뱀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지심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들려야 한다’는 헬라어 <휩소오>의 뜻은 ‘들려지다’ ‘높여지다’의 뜻인데 이것은 신분이 상승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칭송을 받거나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왕이신 주님께서 인간으로부터 높임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높이르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로부터 높임 받으실 왕께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친히 우리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을 은유적으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라

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님과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지만 주
님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구원의 진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의 계교에 빠진 사람들의 짓입
니다. 간단한 구원의 진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
러한 구원을 배우기 위해 집도 팔고 가족도 버리도
록 강요하는 집단이 가까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믿고 영접하
는 것입니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
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10] 사
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 3: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
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 3: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 3:21]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 때에 모든 사람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뭇이라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뭇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죄 있다 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지은 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19절). 누구든지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보다 세상의 어두움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요 3:22] 이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 3:23]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 3:24]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 3:25]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 3:26]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

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
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
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기록이 처음 언급되고 있습
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세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요 4:2]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살렘’이라는 곳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
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가까운 지역에
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위치가 요단강 하
류의 여리고 지역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
다. 왜냐하면 이곳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기 때
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혼자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
는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 보
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빨리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세례 요한의 베푼 세례보다 훨씬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 4:1]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때만 해도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붙잡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매우 큰 신임을 얻고 있었으며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자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버렸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앎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이 장면이 요한복음 1장 35절 이후 부분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 1: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 1:36]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37] 두 제자

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나다나엘 등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 3:27]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 3:28]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요 3:29]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요 3:30]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밝히면서 스스로를 가리켜 '들러리'의 역할자라고 말합니다. 400년간의 영적 암흑시대를 깨고 나타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명성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명

성이 알려졌을 정도로 매우 높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적 대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스스로 메시아가 아님을 시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인생임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 3:31]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
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요 3:32]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
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요 3:33]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을 가지고 생활하셨습니다.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 8:28]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 12: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전하신 말씀만을 전하시고 보여주신 환상대로 그대로 행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주님의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요 16:13]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성령께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관계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보다 명확하
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것도 순종입니다. 주님도 순종하셨으며 성령
님도 순종하십니다. 주님께 순종이 중요하셨으며 성
령께도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삼위일체 하나님
께 순종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음성만
을 들으시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신 것은 전혀
세상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오
직 주님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오직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고 들은
것만 전하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의
대로 생각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행하지 않으셨습
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는 매우 다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야 합니

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으셨던 것은 환상을 볼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능력이 필요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길 원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길 원합니다. 당신 마음속에 그러한 소원이 있다면 당신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당신도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 3:34]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요 3: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요 3: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5절).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만민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성인의 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례

세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으로 교회에서는 성찬의식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확고히 정립하게 됩니다. 세례의식에는 물세례와 성령세례, 그리고 불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

물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을 통하여 부부가 되었음을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 3:13]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마 3:14]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 3:1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

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서는 부활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아가 세례를 베풀 것을 명하셨습니다.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물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의
식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물세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몸으로 죽
는 것을 의미합니다.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
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
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엡 4: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엡 4: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엡 4: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물세례의 선결조건은 회개입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며 그 죄를 자복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물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 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세례

성령세례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성령세례를 받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은 주

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세례를 받습니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세례만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물세례보다 성령세례가 중요합니다.

물세례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령세례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행위이지만 성령세례는 하나님께 보여지는 의식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세례자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불세례

세례요한은 자신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의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물세례만 베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세례와 불세례를 주십니다. 세례요한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마 3:11]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세례를 주시며 또한 불세례를 주십니다. 불세례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불세례입니다. 불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악한 세력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은 불세례를 받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하나님의 능력이 드러
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요한복음 4 장 =====

[요 4:1]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요 4:2]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세례 요한의 세례 방식과는 달리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혼자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요 3:26]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를 서둘러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빨리 세례를 베풀 예수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제자들을 통해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서 행하셨던 제자를 통한 사역의 방식을 따를 때 훨씬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 연합하여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혼자서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내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 직책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일을 맡아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엡 4:11]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엡 4:12]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온 성도는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룬다고 말하였습니다.

“[고전 12: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28]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세째는 교

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요 4:15]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바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며 편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 4:16]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하지만 주님은 여인의 그런 요구를 들으시고 곧바로 그의 감추어진 죄를 들춰내셨습니다. 주님은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 이혼하고 현재는 동

거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감춰진 죄를 들춰내기 위해 남편을 불러 오라고 말씀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요 4:17]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요 4:18] 네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요 4:19]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곧바로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듣고자 원하신 대답이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주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죄를 들춰내셨습니다. 그녀의 죄는 바로 음란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라고 구체적으로 그녀의 모습을 들춰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반응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

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주님을 선지자로 고백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아볼까 구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의 죄를 들춰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면 기분이 나쁠 것 이지만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면 오히려 정신이 바짝 듭니다.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그런 세상적인 삶을 위해 정신없이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할 때 오히려 소망이 생기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도무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양 여

기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 4: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
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요 4:21]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
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 4: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
이니라

[요 4: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
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
라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죄를 들춰내시자 여인의 삶에 변화가 생기
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예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껏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았

던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죄가 들춰짐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죄가 들춰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죄가 들춰질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죄가 감춰질 때 세상을 찾습니다. 죄가 들춰지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예배에 대해 관심이 생긴 줄 아시고 영적 예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비로소 참 경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23절)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도 얼마든지 참 경배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나 혼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이고 혼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적인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또한 영적 예배는 '진리'로 드러져야 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영적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드러져야 하며 오직 예수님을 위해 드러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지도 않는 예배는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세상적인 것이 묻어나오고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 4:25] 여자가 가로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요 4: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라” 하시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이미 여인은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자신의 숨긴 죄까지 고스란히 들춰내신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정욕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슬픔이 가득 찬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희망과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만날 때 모든 슬픔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있었

던 자리에 희망이 들어서게 되어 완전히 새로운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 4:27]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요 4: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요 4:29]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요 4:30]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하지만 이러한 기쁨이 있는 자리에 여전히 의심의 공격이 있습니다. 모두들 기뻐할 때에도 그 기쁨을 빼앗고자 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희망으로 새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희망이 가득 찬 모습으로 삶이 변화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예수께도 그 기쁨을 빼앗고자 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귀의 공격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누구든지 마귀의 공격의 이용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해하려 했고 참으려 했지만 사마리아 여인과의 깊숙한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저들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예수님께 따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자리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불편한 마음들이 끝내 가롯 유다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하며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수차례 받을 때 가롯 유다 스스로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 예수님을 공격했듯이 우리 또한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공격할 수 있고 섬겨야 할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 4:31]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요 4:32]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요 4:33]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드렸는가 한대

[요 4: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 4:35] 너희가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 4:36]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 4:37]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요 4:38]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음식을 사 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여 잡수소서"라며 식사하길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시며

식사하길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은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34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지시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실제로 음식을 전혀 잡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지시하신 것을 수행하는 것에만 온갖 정신이 집중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 외에 그 어떠한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역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목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며 아버지의 지시하신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충성된 군인이 자신의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

을 다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고 헌신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는 헌신자는 더 이상 올바른 헌신자가 아닙니다.

[요 4:39]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요 4:40]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매

[요 4:41]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요 4:42]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니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에 힘입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42절).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에 의해 주님께 왔지만 결국은 그들 스스로 주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내의 요구에 못 이겨 억지로 교회에 나가는 남편이 있습니다. 부모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서 억지로 교회에 나아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나가야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더 생기겠지만 그러한 모습으로는 결코 진정한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은 개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믿음을 심어줄 수 없으며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가능치 못하며 아무리 똑똑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전도를 하는 전도자에게 초점을 맞춰서도 안됩니다. 사역하는 사역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서도 안됩니다. 오직 개개인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요 4:43] 이들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요 4:44]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요 4:45]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을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부로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멸시를 받은 것이 가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세의 침입을 자주 받았으며 이방인들의 왕래가 많았던 지역이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멸시받는 갈릴리 중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나사렛'은 그야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빌립으로부터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46)

며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역을 베푸셨을 때 그곳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눅 4:22)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나 환경을 보며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땅히 우리도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요 4:46]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요 4:47]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요 4:48]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 4:49]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요 4:50]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요 4:51]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요 4:52]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칠시
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요 4:53]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
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
라

[요 4:54]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번째 표적이니라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려 합니다. 바울
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
나"(고전 1:22)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야 믿음이 생겼으며 헬라인은 스스로 이해되어야
믿음을 가졌습니다. 표적을 바라는 유대인이나 지혜
로 판단하는 헬라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표적' 없이 믿으라고 하십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
름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믿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왕의 신하는 아무것도 보질 못했습니다. 아들이 나왔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진도 없었고 영상도 보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의 신하된 자로서 가버나움에 살았습니다. 가버나움은 수리아에서 애굽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관리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들려주셨던 주님의 말씀은 왕의 신하의 이성이나 지식에 맞지 않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병 고침을 받은 기록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들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주님의 말씀을 쉽게 납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왕의 신하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믿으려 하고 자신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해되었을 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은 왜 사마리인을 싫어하는가?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유대지역에 살았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사람들은 시리아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유대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바벨론에 끌려간 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라고 말할 때 유대지파(남왕국)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이 앓수르에 의해 멸망했을 때(기원전 722)

대략 25,000명이 포로로 끌려 갔습니다. 그리고 앗수르 통치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에 살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사마리아는 이방 민족과 섞여 살게 되었으며, 저들의 종교들과 혼합종교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인들을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 남왕국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귀환 한 후에 성전을 재건할 때(기원전 520-515)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재건을 간섭하면서 유대인을 방해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의 성전재건을 방해한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힘을 모아 바사국과 대항해서 싸운다면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이 자기 멋대로 성전을 짓고 별도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사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다리오 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의 동생 므낫세가 산발랏의 딸 나카

소와 정략결혼을 하였는데 이방인과의 결혼이어서 백성들이 반대하였습니다. 산발랏은 백성들의 반대를 저지하기 위해 므낫세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합니다. 또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주고 므낫세로 하여금 성전을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욱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한 이유는 저들의 비열한 성품때문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에 헬라제국은 네 명의 부하 장수에 의해서 나뉘어졌습니다. 그 중에 수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가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기원전 168년). 에피파네스는 스룹바벨 성전을 훼파하고 각종 성물을 훔치고 노략했으며 성전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안식일 제도를 폐지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제사를 못 드리게 했으며 할례를 금지하는 등 유대인의 신앙을 철저히 파괴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불복종한 사람은 처참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가 10만명에 달했습니다. 안피파네스의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

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후회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마리아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유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저들과 달리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비열한 행위는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 장 =====

[요 5: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요 5: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요 5:3]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요 5: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셨습니다. 헤롯 성전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물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들이 내려온 것이라고 여기고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병 고침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요 5:5] 거기 삼십팔 년 된 병자가 있더라

[요 5: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요 5: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요 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요 5: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십니다. 그 사람이 진정 치유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 아시니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사람이 주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결코 안 들어 주실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엉뚱한 곳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문제 해결자이신데 그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7절)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운슬러를 찾아갑니다.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치유책을 찾기 이전에 주님을 찾아야 함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절대적인 해결책이십니다.

[요 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요 5: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병자가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병을 치유하려고 했을지라도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는 주님께서 참 치유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치유를 얻고자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치유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받기 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받으려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치유자이심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치유 사역자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병자들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렇게 치유를 받은 병자들은 비로소 주님께서 진정한 치유자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불쌍한 병자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질병을 치유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법규를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안

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병을 치유하는 것조차 일에 해당되었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조차도 안식일의 법규를 범했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마 12:8)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막 2:27)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마 15: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 15: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요 5: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요 5:11]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요 5:12]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요 5:13]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무
도 도와주지 않았던 불쌍한 병자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질병을 치유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법규를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안
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병을 치유하
는 것조차 일에 해당되었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자
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조차도 안식일의 법규를 범했
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마 12:8)
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
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막
2:27)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마 15: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 15: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요 5: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치유함을 받은 병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가 질병을 가져오는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상의 지은 죄를 통해 각종 질병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상의 죄도 내게 해당되는 '죄'입니다. 가족의 지은 죄를 통해서도 각종 질병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죄인과 함께 거할 때 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

니다. 죄인인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는 죄를 짓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에 비해 훨씬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문제 있는 남편과 사는 아내에게는 각종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 역시 내게 있는 죄입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와 연관된 가족과 조상들을 통해 죄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질병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 죄가 조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가족의 죄인지 알지 못하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38년 된 병자의 지은 죄로 인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9:2]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요 9: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
라.”

이처럼 우리의 질병이나 문제의 원인이 모두 죄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로 인해 대부
분의 질병과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로 인해
질병과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
다.

[요 5: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요 5:16]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요 5:1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 5:18]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
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조

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관점과 삶의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일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또한 죄인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 5: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

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요 5: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
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셨으며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가지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들었으며 행하심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행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야 가능합니다. 결코 우리의 육적인 감각으로는 주님의 행하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활성화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보여주신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음성과 환상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사역을 행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요 5: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 5: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
느니라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
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
겼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부활과 사
망의 부활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
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처럼 저들은 예수님을 단

순한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여기는 사람은 사망의 심판을 모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요 14:6).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생긴 것입니다(히 10:20). 히브리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증거합니다.

[요 5: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도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히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 5: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요 5:27]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심판 때의 일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26-27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주님께서 누구보다 심판 때의 일에 대해 잘 아십니다.

[요 5:28]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 5: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29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보다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는 불뭇에 던지우더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천국에 살겠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사망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항상 주님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적인 ‘선’의 개념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은 착한 일을 하거나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선’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 칭하십니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선한 행실을 행한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

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 14: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혹자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영적인 의미이듯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 또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왕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계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요 5:30]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스스로의 뜻과 의지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 8:28]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 12: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요 5:31]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요 5:32]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요 5: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요 5:34]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5:35] 요한은 켜서 비취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 5:36]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우리는 사람들의 증거를 찾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만을 찾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증거를 찾는 자는 실족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를 찾는 자는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찾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만으로 예수께서 만족한 삶을 사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증거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거'라는 단어는 <마르튀리아>로써 '증인'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순교자(martyr)'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증거를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만을 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핍박과 조롱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증거를 취할 때는 그 마음 때문에 고난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증거만이 온전한 증거입니다.

[요 5:37]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요 5:38]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경 말씀이 읽혀지

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이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성경 자체를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했지만 혼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지식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성경 말씀의 기적들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느끼게 됩니다.

[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저들은 모세 오경을 열심히 상고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비록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을 뜻한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되 헛되이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체면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한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 5:41]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 5:42]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요 5:43]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 5: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

님께서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 5: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요 5:46]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요 5: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사람들은 세상적입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귀로 세상을 듣습니다. 세상의 냄새를 맡고 세상의 말을 하며 세상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 통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건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능력자를 좇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모습입니다.

'고소하다'란 단어는 <카테고레오>로써 법적으로 누군가를 고소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는 사후의 심판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고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고소할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의 모세 오경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 오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수없이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 장 =====

[요 6:1]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요 6:2]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전 1: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고 말하면서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으며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헬라인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유대인과 같은 성향의 사람도 있고 헬라인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다소 육적인 단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혜를 찾는 사람은 다

소 혼적인 단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적이고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기 힘듭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영역이 발달되고 혼적인 영역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을 이루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는 오직 영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많고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오직 영적인 부분만 사용될 것입니다.

[요 6:3]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요 6:4]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 6: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요 6: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요 6: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요 6: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요 6: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이까

[요 6: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오천 쯤 되더라

[요 6: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요 6:12]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
라 하시므로

[요 6: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 사항을 아십니다. 또
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
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
음을 살펴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싶어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보고 싶어하십니다.

여기 '한 아이'는 아주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
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제법 성
장한 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안
드레는 강제적으로 이 아이의 도시락을 뺏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주

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드렸기 때문입니다.

보리떡은 어린아이 손바닥만 한 작은 크기의 떡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일종의 멸치와 같은 물고기인데 반찬으로 먹을 수 있도록 양념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그 아이가 먹을 만한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수가 오천쯤 된다는 말은 성인 남자만을 가리킨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사람 수는 모두 남자들만 가리킨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인식을 치른 13세 남자부터 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50세 미만의 남자의 숫자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남성의 숫자만을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의 남성우월주의 사상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개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성들의 권위를 남성들과 똑같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남성

과 여성이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져다주신 큰 은혜입니다.

[요 6:14] 그 사람들이 예수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 6:15]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산으로 가신 이유는 홀로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께서 홀로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늘 주님께서 홀로 거하실 만한 한적한 곳을 찾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1:35]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

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서 드리지는 기도는 한적한 기도이며 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과 동떨어진 장소이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한적한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골방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요 6:16]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요 6:17]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요 6:18]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요 6:19]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요 6:20]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요 6:21]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장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위협함을 아시고서 저들을 위해 바다 위를 걸어 오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고서 기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주님' 뿐이십니다.

[요 6:22]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요 6:23]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요 6:24]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요 6:25]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요 6:26]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많

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꾸짖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려고 걱정하고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찾은 것은 오로지 저들의 문제를 해결받기만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찾을 때 단지 용돈이 필요해서라면 부모의 마음은 무척 서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자 부모 앞에 나온다면 부모의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 6:27]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은 세상의 양식입니다. 또한 주님과 상관 없는 양식입니다.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영생 양식을 먹는 사람은 썩는 양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먹고사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 외에 생각하는 양식이 썩는 양식입니다. 이것은 마치 욕심부리고 만나를 더 많이 취했을 때 남은 만나가 썩어 못 먹게 되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을 바랍니다. 주님의 양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 달라’ ‘저것 주라’며 아우성입니다. 주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썩는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양식만이 참된 양식이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 6:28]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요 6:2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

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최선의 사역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것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의지나 나의 지식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6:30]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요 6:31]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요 6: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요 6: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 6:34]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요 6: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6:36]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 극심한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저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성경은 "[출

16:35]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 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출 16:35)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모세가 준 만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준 만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만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먹을 양식이 만나처럼 내려지고 있으며 날마다 편히 쉴 처소가 만나처럼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의지에 따라 모세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만나도 취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리지 않게 하는 '영생 양식'이십니다. 어떻게 주님의 양식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 양식'을 얻는 비결이며 그것은 '참된 양식'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을 영접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입니다.

[요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

하리라

[요 6:38]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요 6: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 6: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예수님께 구원받을 자를 정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으니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행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요 6:41]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요 6:42]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요 6:4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요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 6:45]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 6:46]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사람들은 육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귀로 들려지고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일시적인 것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세상의 것은 모두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오직 실상은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건강이 있으며 영원한 부유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것이 실상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이 땅의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허상을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45절)는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사 54:13).

[요 6: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 6: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요 6: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요 6:50]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 6:51]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취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취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란 주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

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던 이스라엘 조상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백성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국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순종을 싫어하십니다. 누구든지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 6:52]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요 6: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 6: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 6: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 6:58]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 6:59]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생명까지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생명'은 목숨을 뜻한 것이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생계수단과 필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 5: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 5:27]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처럼 저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여기는 사람은 사망의 심판을 모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요 14: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

으로 옮겨졌으며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생긴 것입니다(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요 6:60]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요 6:61]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영적인 것이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육적인 방법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의지적인 것으로 들으려 하는 것은 모두 육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육적인 방법을 버리고 온전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요 6:62]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 하셨지만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 28:16] 열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마 28: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텐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마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 6:64]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임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며 우리의 육신 또한 살림을 받게 합니다. 영적인 말씀은 권능이 있고 역사가 있어 누구든지 영적인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영적인 양식을 받게 하지만 육적인 말씀은 세상적이며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찾

지 못합니다. 오직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전 2: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요 6:65]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요 6:66]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 6:67]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요 6: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요 6:69]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

[요 6:7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한 사람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밝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였듯이 우리 또한 주님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저들이 주님을 떠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저들이 추구한 것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세상을 좇기 원했음으로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세상을 등지고 살려는 사람은 주님을 좇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는 이처럼 현저하

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백하고 주님을 좋아하며 따랐던 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외면한 채 떠나고 맙니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서도 오히려 스승을 배반하며 원수들에게 주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할 정도로 변해 버리는 것은 육적인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요 6:71]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가롯 유다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제자에게 배반당한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가롯 유다의 배반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막 14:21]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력으로 첫째달인 아빕월 15일에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14일날 유월절을 치른 후에 애굽사람들이 급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는 바람에 급하게 무교빵을 만들어서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애굽을 떠난지 한달이 되었을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출 16:1-3).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생활을 그리워하며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출 16:1-3]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이월 십오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전에 홍해를 건넌 후 사흘째에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였는데(출 15:22), 이번에는 음식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떡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떡을 원하였기에 떡과 같은 만나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떡과 고기를 먹고 싶어 모세를 원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고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떡과 같은 만나만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내려주지 않으시고 만나만 내려주신 것은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떡되신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 6: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지 않으시고 만나를 먼저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생활을 온전히 끊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는 애굽에서 먹던 떡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려 40년동안이나 만나를 공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묻어있는 애굽의 떡 맛을 완전히 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는 갯씨같고 색깔은 진주와 같았습니다. "[출 16:31]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갯씨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민 11:7-8] 만나는 갯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찜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갯씨는 3mm 정도크기의 매우 작은 회백색 동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마치 진주와 같았습니다. 열매가 처음에는 악취와 함께 비린내가 있지만 나중에서야 비로소 향기나는 열매로 변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출애굽 하도록 인도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것은 저들이 애굽생활의 삶을 벗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저들에게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만나를 내려 주셨지만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허락하십니다. 처음에는 주지 않으셨지만 끝내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말았습니다.

“[출 16:11-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

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들에게 내린 고기는 3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고기를 내리셨을 때 기쁜마음으로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시기 위해 내리신 고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 11:18-20]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닻새나 열흘이나 이십 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일 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는 백성에게 "코에서 넘쳐서 싫어 하기까지 일 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 있었다"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말한 '재미있었다'는 의미는 세상의 정욕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성욕'입니다. 저들이 고기가 없어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소와 양과 가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른 음식과는 달리 살아있는 생축을 가지고 나올 때는 생축을 통해 얼마든지 고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말한 '고기'는 단순히 영양분을 제공하는 고기가 아니라 '정력'을 키워줄만한 그런 고기였던 것입니다.

"[민 11:4-6]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

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 하니.”

물론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정력'이라는 단어는 '영혼'이나 '생명'을 의미하는 <네페쉬>입니다. 하지만 '정력이 쇠약하다'는 말은 '몸이 뼈쩍 말라졌다'란 의미로써 만나밖에 없는 지루하고 반복된 삶을 통해 세상적인 재미없는 삶을 빚대어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 애굽생활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소원대로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30일 동안이나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30일동안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즐겨먹었던 고기였습니다. 특별히 메추라기는 저들에게 정력을 돋게 해 주었습니다. 애굽에는 갈대 숲이 많았는데 메추라기가 많이 날아 들었

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메추라기를 통해 저들이 고된 노역생활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정욕을 발휘해서 자손을 많이 낳아 심히 번성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죄하시면서 저들을 가르켜 '탐욕을 낸 백성'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민 11:31-34]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십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퍼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잇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탐욕'은 '바라다' 혹은 '소

원하다'의 뜻을 가진 <아바>인데 다른 여인을 탐할 때에도 <아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 5:21]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찌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찌니라” 결국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은 메추라기 고기가 잇사이에 끼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고 만 것입니다.

마땅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길 때 그것이 믿는 자의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 8:3]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7 장 =====

[요 7:1] 이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요 7:2]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 7:3]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요 7:4]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요 7:5]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 이러라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1년에 세 차례 성전에 나올 것을 명하셨습니다.

”[출 34:23]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출 23:17]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말에는 '이런 시골 바닥에 처박혀 있으면 누가 당신을 알겠으며 누가 당신을 따르겠느냐? 명절 때 사람들이 많으니 지금이 당신 사역을 위해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세상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방식으로 주님의 사역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은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저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이후 교회의 수장

이 되어서 교회를 치리했습니다.

[요 7: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때’(time)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time)는 하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 7:7]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요 7:8]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하나?’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은 주님께서 핍박을 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당한다면 바로 그 때 주님께서 함께 핍박을 당하심이고 그런 주님께서 당신의 핍박당함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눅 4:6]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잠시 세상의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이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며 방해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최대한 세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 7:9]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요 7:10]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요 7:11]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요 7:12]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요 7:13]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분명히 주님께서 형제들에게 "[요 7:8]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제들이 명절을 참석하려고 떠난 후에 저들 몰래 명절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행하신 것은, 예수님은 세상 사람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 7:14]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요 7:15]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요 7:16]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 7:17]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 7:18]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예수님의 지식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서 이스라엘 선생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 논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아버지로부터 지식을 전해 받은 사실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교훈이 하나님아버지로부터 전해 받은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모든 지식과 가르침은 곧 하나님아버지의 것임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하나님아버지로 부터 모든 교훈을 전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받아 사역을 행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8)

'스스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불의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된 사람입니다.

[요 7: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요 7:20]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니까

[요 7:2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 도다

[요 7: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요 7:23]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요 7:24]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시면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의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라는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라면 자다가도 번쩍 눈을 뜰 정도로 열심히 지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모세의 율법만을 지나

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정작 그 율법을 지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깊이있게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께에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얽매어서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보다 율법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니 나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할 중요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요 7:25]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요 7:26]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요 7: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

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들의 생각엔 자신들의 생각이 맞을 것이라고 확신하겠지만 저들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생각이며 결코 주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비록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전히 천국의 맛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요 7:28]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요 7:29]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요 7:30]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세

상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들에 대해 조금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아버지께서 참되심으로 주님께서도 참되심을 스스로 입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로 부터 핍박을 받으며 오해를 받습니다. 이럴때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굳게 믿으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최고의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굳게 부여잡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흔들림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정해진 '때'가 차기 이전까지는 그 아무도 주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요 7:31]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요 7:32]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요 7:3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요 7:34]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어찌보면 유대인 중의 몇몇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혹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란 마음을 가진 것은 그들이 세상의 눈으로 본 표적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눈으로 본 표적들은 시련이 닥치고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될 때 언제 그랬냐는듯이 내팽개쳐질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고귀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요 20:29)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

구든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천국'에 거할 것입니다.

[요 7:35]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요 7:36]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서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헬라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은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말씀을 읽을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읽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성경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성경말씀이 재미가 없고 세상책보다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 7: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 7: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을 의미한다고 바로 뒷구절인 3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영

광을 받으셨으므로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성령의 부으심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었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처럼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신 이후에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요 7:40]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요 7:41]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요 7:42]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다윗의 씨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 메시아가 베

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 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이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요 7:43]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요 7:44]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요 7:45]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요 7:46]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요 7:47]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요 7:48]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요 7:49]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요 7:50]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요 7:51]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요 7:52]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요 7:53]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에 보다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으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으나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을 옹호했으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 매장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후에 초대교회 일원이 되어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에는 메시야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사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그 메시야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으로 오신다는 내용이 2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 9: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바로 '사망의 그늘진 땅'은 갈릴리를 포함해서 해변 땅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사 9:1).

예수님께서서는 미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며(미 5:2), 갈릴리 지역에 속하는 나사렛 동

네에서 자라셨으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갈릴리 지역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성경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무조건 자신들의 전통과 아집만을 주장하며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망언을 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그토록 갈릴리를 싫어했던 까닭은 북방 변방 지역의 갈릴리가 외세의 침입을 자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이 무너진 도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다음으로 갈릴리 지역도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1.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열번째 장자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문 설주와 좌우 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유월절과 관련된 절기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생각할 때 다음의 두가지 절기를 함께 기억하기 바랍니다.

먼저 유월절은 종교력의 1월 14일(민간력의 7월)에 지켜졌으며, 무교절은 14일부터 1주일간 지켜졌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없는 떡을 먹었는데 이것 역시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후 첫번째 안식일 다음날에는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초실절은 보리추수를 기념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2. 오순절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오순'이라는 뜻은 50을 의미합니다. 한 주가 7일로 구성되어 있고 오순절은 모두 일곱번의 안식일이 지난 후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 \times 7 = 49$ 다음날인 50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이 맥추절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은 오순절이 밀추수를 기념하기 때 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강림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

로 오순절 절기때였습니다.

3.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생활을 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종교력의 7월(민간력의 1월) 15일부터 1주간 장막에서 생활하면서 광야생활을 기념하여 지켜집니다.

단순히 광야생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만은 아닙니다. 이 절기는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절기입니다. 포도나 무화과열매의 결실이 풍성한 절기여서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기는 1년 중 가장 마지막에 열리는 절기이며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매일 제단에 붓는 행사가 행해졌는데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에 참여하여 '배에서 생수가 흘러 나올 것'이라는 설교를 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할 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다시금 상기 시키시며 '할레'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나
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
니라"(창 17:10)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할례의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반드시 행해졌던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신지 8일만에 성전에 가서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례할 팔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러라 모
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눅 2:21-
23)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의식을 명령하시면서 "[창 17:11]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피'를 베라는 것입니다. '양피'는 남성 성기의 끝부분 표피를 말합니다. 양피를 자르게 되면 피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되었을 지라도 할례의식을 행한 남성은 며칠동안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잘 못하다간 병균이 몸 속으로 들어와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피의 제거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피가 베어지면서 흐르는 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또한 베어진 양피는 세상적인 것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뜻합니다. 바울은 "대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롬 2:28-29)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할례의 영적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단순히 '육적인 할례'에 대해

강력하게 꾸짖으며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행 15장 참조). 그래서 바울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골 2:11)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바울은 할례의식이 마치 세례의식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골 2:12)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매우 고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수 5장)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충분히 목격할 수 있고 정탐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앞두고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며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의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의식을 행하게 한 것은 저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

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 물어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하게 저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새롭게 떠오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누워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긴박한 때에 할례의식을 명령하셨는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은 할례의식과 함께 더욱 강력하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창 17:14)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 장 =====

[요 8:1] 예수는 감람 산으로 가시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 자주 감람산에 오르셨으며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바로 이 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요 8: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요 8: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요 8: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요 8: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레 20:10]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 22:22]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라고 사형에 처해야 하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여도 모두 법에 어긋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법이 적용되었지만 로마법에 의해서는 유대 민간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치라 하면 로마법에 위배가 되고 또 죽이지 않으면 율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요 8:6]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요 8:7]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요 8:8]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요 8:9]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

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세상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관점은 누가 더 큰 죄를 범했느냐를 가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조그마한 죄를 지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서 매우 간단하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언급되었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죄의 정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간음한 여인의 죄가 자신들의 죄보다 더 크다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죄를 봤다면 아마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은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죄의 정의를 생각하게 하고 마음에 느끼게 했기 때문에 저들이 돌로 내려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죄를 평가할 때는 정죄함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죄를 평가할 때는 나 자신이 죄인임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요 8: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요 8: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여인의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죄는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가치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행위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지은 죄를 떨쳐 버리고 보다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진지한 태도로 맞이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 8: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
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빛으로 나오면
빛을 받습니다. 빛을 받으면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을 사랑하므로 스스로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
다([요 3:19]).

[요 8:13]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
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요 8:1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
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
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앎이어나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 8:15]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요 8:16]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요 8: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요 8:18]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 2: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신 19:15]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라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세

율법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증거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의 증거만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깊은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좋을 때만 함께 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함께하시는 주님은 너무 좋은 위로자입니다.

[요 8:19]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 8:20]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

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요 8:21]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요 8:22]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요 8: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 8:24]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으며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일 5:19]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은 세상적인 모든 요소가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요소가 있으니 그것은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뿐입니다.

"[고전 13: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고스란히 천국에 가지고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과 함께할 것이라는 '소망', 주님과 영원히 누릴 '사랑'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며 천국의 것입니다.

[요 8:26]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요 8:27]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 8:28]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 8:2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
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인자를 든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
아가심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금 생명을 얻고 부활하신 후
에 다시금 승천하실 것을 주님께서서는 아셨던 것입니
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신의 사역의 전체적인 모
습을 알 수 있으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
쳐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듣고 보여주신 것을 보시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
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
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셨던 것
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리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기쁨을 누리셨겠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서 더 큰 기쁨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렸을 때 보다 강력하고 담대하게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했을 때 기쁨을 누릴 부모보다 효도하는 자녀들이 오히려 큰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때에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만 비록 우리가 죄에 빠져 살아갈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빠져 살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평안을 빼앗아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 8:30]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요 8: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요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님께 귀속됩니다. 그것은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얻게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진리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허물이 벗겨지고 영이 살아 숨 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 8:33]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요 8: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 8: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요 8: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 8:37]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했으며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생각에 얽매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육적인 삶이었습니다. 저들의 추구하는 것이 육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고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삶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의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며 그에 합당한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지라도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삶은 헛된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정직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 '종의 삶'이라고 하십니다. 종의 삶은 자유한 삶이 아닙니다. 종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뜻에 의해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의 삶은 늘 자유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자유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자유한 삶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세상의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밀려올지라도 자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마 13장)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종류를 구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말씀을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씀대로 잘 살다가 세상의 근심 걱정과 재물에 미혹을 받아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좇습

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대인들은 말씀조차도 듣지 않으려 했던 강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좇는 사람들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세상의 것에 애착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당장에 죽을 상황에서도 손가락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분 후면 죽을 인생인데 끝까지 바둥대며 세상의 것을 놓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이처럼 다를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것들이 영적인 것을 가로막는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은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도무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저들에게는 세상만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보신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아

도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있듯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옥토 밭처럼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요 8:38]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요 8:39]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어늘

[요 8:40]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과 유대인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행함의 원천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예수님의 행함의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행함의 원천은 부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부모는 사람입니다. 어찌 하나님과 사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모든 행함의 원천을 물려받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더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그 마음을 꺾지 않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막 7:6]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막 7:7]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유대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배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계명'은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밖에는 모릅니다.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보는 세상이 한정되어 있듯이 자신의 생각과 지식이 전부인 양 그것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문제를 바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들이 추구하는 것이 '영생'이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던히도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의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전하사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이었고 2천 년 전의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과거형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저들의 눈앞에 서 있고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더욱 예

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믿음입니다.

[요 8:41]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사를 하느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요 8:42]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 8:43]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으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아브라

함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민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유대인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저들의 신앙심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하지만 저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든 것입니다.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저들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들이 실제로 마귀의 자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저들의 하는 행위가 마귀 짓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의 자녀 같을지라도 실제로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정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의 자녀로 삼습니다.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귀가 욕심을 내는 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가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과 견주려고까지 했습니다.

“[사 14: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사 14: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세상의 욕심을 내는 사람은 마귀와 같은 자입니다.
누구든지 욕심을 부리는 자는 그 욕심으로 죄를 만
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약 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
질 것입니다.

[요 8:45]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 8: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
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요 8:47]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
음으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
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
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으로다”고 말씀하셨습니

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은 저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인 책입니다.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 8:48]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요 8:4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여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요 8:50]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잘못된 유대인들에 대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했으며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 8:5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요 8:52]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 8:53]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요 8:5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 것도 아니어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

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요 8:55]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요 8: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 8:57]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오십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요 8: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요 8:59]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구약의 믿는 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비록 저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들은 메시아를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유대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으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의 조직

바울이 영적전쟁을 언급하면서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개념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입니다. 충분히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했던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적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와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전쟁보다 마귀

의 전쟁이 훨씬 상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귀는 다음의 네 가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네 가지 조직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적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게 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지만 일단 마귀의 조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정사

마귀의 네 가지 조직의 첫번째는 '정사'입니다. '정사'의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근원'입니다. 또한 이것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태초에'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나 영어성경에도 두 군데 모두 'In the beginning'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어를 살펴봐도 창세기와 요한복음 모두 <아르케>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

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때문에 <레쉬트>라고 기록되었지만 <레쉬트>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르케>의 역어로 사용되었기때문에 결국 똑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이 두 구절을 병행해서 기록해 보겠습니다.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의 1장 1절이 같은 맥락에서 씌여졌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사도요한이 자신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시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세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창세기와 연결시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태초에(in the beginning)’라는 단어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것의 시작되

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귀의 네 가지 조직을 언급하면서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귀의 조직을 설명하면서 첫번째 단계를 '정사<아르케>'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근원의 시작인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모든 근원인 '마귀'를 견주어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정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사'는 '마귀'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부여잡은 자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정욕'이라는 것을 통해 사람을 꾀니다. 하와가 '정욕'에 이끌리어 마귀의 꾀임에 빠져 죄를 범하였으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 죄를 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귀'를 가리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엡 2:2]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2. 권세

‘권세’는 헬라어 <엑수시아>로써 ‘권력자’ ‘통치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 나라의 권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나 각 대륙연합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권세’라는 단어에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도 포함됩니다.

마귀는 ‘권세’라는 조직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세’는 작은 지역이나 영역이 아닌 보다 큰 지역을 의미하며 그 지역과 나라의 통치자를 자신의 세력아래 놓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3. 어둠의 세상주관자들

‘어둠의 세상주관자들’은 각 나라와 큰 지역 권세를 사로잡는 마귀 조직에 해당됩니다. 어떤

지역에는 음란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고 또 다른 지역은 도박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범죄가 많은 지역이나 자살이 많이 자행되는 도시는 모두 특정한 마귀의 세번째 조직인 '어둠의 세상주관자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는 도박의 주관자가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 가면 도박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이나 도박의 영은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라스베가스는 도박이라는 무기로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주관자가 있기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욱 빨리 강하게 도박의 영을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절이 많은 지역에는 절과 연관되어 우상숭배자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절이 있는 곳에는 우상과 잡신의 역사가 강하기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한국의 명산에는 각종 점쟁이와 무당이 깔려있습니다. 산이 좋다고 찾아가는 등산객들에게 점쟁이와 무당의 잡신이 스

며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명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런 점쟁이들이 있는 지역을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4. 악의 영들

바울이 '악의 영들'이라고 말했을 때 복수를 사용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악의 영들'은 도처에 깔여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것들은 소위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악하고 더러운 영들입니다. 이러한 영들은 개인에게 공격하고 침투하며 거주하여 묶임을 놓습니다. '미움의 영'이 깃든 사람은 미움으로 가득칩니다. '절망의 영'으로 깃든 사람은 절망과 좌절하는 마음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자살의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사람들을 공격하며 저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영들입니다. 저들은 복잡하고도 여러가지 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조

직은 치밀하고 단계적입니다. 주로 가장 먼저 활동하는 영은 <의심의 영>입니다. 의심의 영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다가옵니다. 저들에게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멀쩡한 사람도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의심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뜨려 이혼하게 만들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깨뜨려 이혼하게 만들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깨뜨려 가정을 파괴합니다. 의심의 영은 사제간의 관계와 사장과 사원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일단 의심의 영이 사람 안에 자리하게 되면 의심의 영은 또 다른 영을 불러 드립니다. 다음으로 들어 오는 영은 <걱정의 영>이나 <불안의 영> 혹은 <근심의 영>같은 영들입니다. 이러한 영들이 사람 안에서 활동하게 되면 다음으로 오는 영은 <슬픔의 영>입니다. 아마도 거의 동시에 <절망의 영>이나 <고통의 영>도 함께 올지 모릅니다.

이러한 영들에 의해 사로잡히게 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으며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조차 발견하지 못하며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니다.

그러다가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저들에게 찾아오는 영은 <죽음의 영>입니다. 죽음의 영은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듭니다. 자살하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도 자살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단만이 그것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옥에 갈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이해가 바로 잡혔다면 내가 누구와 싸움을 해야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부분의 적은 악한 영들입니다.

요한복음 9 장 =====

[요 9:1]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을 보신지라

[요 9:2]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었나이까 자기었나이까 그 부모었나이까

유대인들은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 영혼의 잘못으로 인해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실 때 항상 두 가지 카테고리가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마귀로 인한 질병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신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 10:1] 예수께서 그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하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구분하

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마 8: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고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연약한 것'과 '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사역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행 10: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착한 일을 행하신 것'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질병에는 마귀로 인해 죄를 지음으로써 형벌로 오게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신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갖게 되는 질병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질병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 9: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

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건강하게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로 태어났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가난하게 태어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로 태어났어도 그리해야 하고 여자로 태어났어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요 9: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 9: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일할 수 있으나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실 때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

다. 그러니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함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 9: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요 9: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 9:8] 이웃 사람들과 밋 전에 저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요 9:9]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요 9:10]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요 9:11]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요 9:12]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주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소경 된 자의 눈에 바르신 것은 참으로 특별한 방법입니다. 언뜻 보면 매우 불쾌해 보이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진흙을 눈에 바르면 보이지 않는 눈이 더욱 어두워집니다. 가장 낮은 자에게 더 낮아지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앉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를 내려놓게 하심입니다. 침을 뱉은 것과 같이 불쾌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닥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소경은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눈에 진흙이 발라진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놀림과 조롱거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경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할렐루야!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 동쪽에 위치한 연못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쟁을 위해 준비했던 연못이기도 합니다.

[요 9:14]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요 9:15]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요 9:16]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요 9:17]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대

[요 9:18]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요 9:19]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요 9:20]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

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요 9:21]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 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요 9:22]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요 9:23]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 보시오 하였더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노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서 소경을 치유하신 것이 선한 일이지만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그것은 육체적 노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선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법규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로서 온자가 아니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사로잡혀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자는 율법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소중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추악한 죄

악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통'은 좋은 것이지만 '전통주의'는 골치 아프게 하는 질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항상 어떠한 것에 얽매어 사는 사람은 본인도 피곤하게 하지만 주위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심을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들이 세워놓은 전통과 장로의 유전들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보다는 율법이 훨씬 강력한 법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요 9:24] 이에 저희가 소경 되었던 사람을 두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요 9:25]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요 9:26]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요 9:27]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

자가 되려 하나이까

[요 9:28]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요 9:29]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
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
라

[요 9:30]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
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요 9:31]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
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 9:32]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요 9:33]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
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요 9:34]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어 보내니라

안식일의 법을 어겼던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으면 바
리새인들이 욕을 하면서 소경의 말을 반박했겠습니

까. 이처럼 율법에 얽매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 침범당하고 훼손당한다 싶을 때 자신이 쌓아 올린 율법적 유산들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율법뿐입니다. 그것만 생각할 뿐이고 그것만 지키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그 굳은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겔 36: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병 고침을 받은 소경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결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따질 때는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지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됴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 7:20]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열매를 보면 저들은 자기 자신이 믿고 따르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열매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율법주의자임을 드러내고 있으며 자신들이 세워놓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열매를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매가 옳은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사람의 됴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합니다. 비록 긍정적인 열매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 속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 9:35]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요 9:36]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요 9: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요 9:38]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
라

예수님께서서는 다시금 소경을 만나셨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소경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두 번째 만나신 것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영적인 소경으로서 눈을 뜨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오히려 주님보다 더 섬기고 찾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으로 소경 된 자가 많은 것입니다.

[요 9: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요 9:40]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요 9:4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제 있느

나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보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소경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앞에 다시금 나타나셨을 때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을 읽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것을 다 주실지라도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경은 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에 대해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쉽게 천국의 것을 그리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며 사는 사람이 오히려 천국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쉽게 발견

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병들어서 고생했던 나사로의 경우엔 천국의 삶은 저가 꿈꿀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부자에게는 어쩌면 이 세상이 저 천국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소경과 천국의 소경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눈 뜬 사람들이었지만 천국에 대해서는 소경인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 9:41] 너희가 소경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제 있느니라"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국한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도 소경인가?"라며 예수님의 말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 중에도 바리새인처럼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양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천국의 것에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가 저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이 가장 현명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저들은 주님의 눈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의 법을 제정 하셨습니다. 안식년은 안식일의 연장이었습니다. 안식일이 6일 후에 7일째에 안식하는 것이라면 안식년은 6년 후에 7년째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안식하였습니다. 이 해에는 사람도 안식했으며 토지도 안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갈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냥 놔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은 땅으로 하여금 안식을 취하게 함이며 이로 인해 더욱 소득이 증대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레 25:1-5)”

하나님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제 7년째 땅을 쉬게 할지라도 6년째에 3년 동안 취할 수확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6일째에 만나를 갑절로 내려주신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7년째 땅을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 칠 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 육 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 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 팔 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 구 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레25:18-22)

안식년 기간에는 모든 사람이 공평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땅이 안식을 누림으로 땅 주인과 일반 사람은 모두 공평하게 되었습니다. 안식년 기간에는 토지 주인이라 할지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으며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은 모든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종이나 나그네나 들짐승까지 안식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

라.”(레25:6-7)

또한 안식년에는 종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종은 모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었으며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 7년 안식년에는 모든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매 칠 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 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

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 할지라도 너는 치리 함을 받지 아니하리라.”(신 15:1-6)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되는 39가지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느질 2) 밭가는 일 3)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4) 곡식단을 묶는 일 5) 타작하는 일 6) 곡식을 까부는 일 7) 곡식이나 거두어 들인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8) 곡식을 가는 일 9) 체질하는 것 10) 반죽하는 것 11) 빵을 굽는 일 12) 양털을 깎는 일 13) 양털을 빠는 일 14) 양을 치는 일 15) 양털을 물들이는 일 16) 실을 짓는 일 17) 실 따위를 엮는 일 18) 두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19) 두 개의 실을 엮는 일 20) 두 개의 실을 푸는 일 21) 실을 묶는 일 22) 실을 푸는 일 23) 두 조각을 꼬매는 일 24) 두 조각을 꼬매기 위해 찢는 일 25) 사슴을 뿔으로 잡는 일 26) 사슴을 도살하는 일 27) 사슴의 가죽을 벗기는 일 28) 사슴의 고기에 소금을 치는 일 29) 사슴 가죽을 가공하는 일 30)

사슴 가족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31) 사슴의 가족을 자르는 일 32) 두 글자를 쓰는 일 33) 두 글자를 쓰기 위해 두 글자를 지우는 일 34) 건물을 짓는 일 35) 건물을 부수는 일 36) 불을 끄는 일 37) 불을 켜는 일 38) 망치질 39)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안식일의 법규를 어기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라고 여겼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법입니다. 안식일의 법규에 대해서는 미쉬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엷세나파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안식일 법규를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500m 이상 움직여서는 안되었으며, 마실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붓는 것, 무엇을 집에서 밖으로 내가거나 밖에서 집으로 들여오는 것, 닫힌 항아리를 여는 것, 새끼를 낳는 짐승을 도와주는 것, 집안 청소, 아이를 안아 주거나 업어 주는 것도 금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일을 시키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 가까이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명을 구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지만 이러한 법규를 어겼을 경우엔 7년동안 구금 생활을 하게 하는 엄격한 안식일법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락된 것이었지만 생명의 위험이나 매우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것이나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예수님의 기적은 선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나 소경같은 경우엔 안식일이 지난 평일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마 12:11)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신 것은, 안식일의 법규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주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양을 잃는 것이 아까워 법규를 쉽게 어기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절대적인 이유는 "왜 평일 날에 할 수 있는 일을 안식일

에 행하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걸렸던 여인을 고쳐 주셨을 때도 안식일이었는데(눅 13:10-17) 이때에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이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십 팔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고 반박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된다는 법규를 중요시 여긴 반면에 예수님께서서는 생명과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중요성을 두셨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었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일련의 노동이라고 정죄했지만 배고파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배고픔을 해소하고자 했던 행위임을 내세우면서 제사장만 먹었던 진설병 음식을 다윗이 제자들과 함께 먹었다는 내용으로 반박했습니다(삼상 21:1-6).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

에도 주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2:27).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얽매어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율법은 자신 스스로
를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이지만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난하거나 정
죄해서도 아니됨을 가르치셨습니다. 오히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
는 것이 안식일에 더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치셨
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 장 =====

[요 10: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요 10:2]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요 10:3]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 하여 내느니라

[요 10:4]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 오되

[요 10:5]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문(door)'은 합법성을 말합니다. 오직 주인만이 문을 열 수 있으며 주인의 허락을 받은 자들만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문' 되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몰래 넘어 들어옵니다.

양은 특성상 목자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아무리 목자

의 모습이 바뀔지라도 제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처럼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샅꾼’은 ‘선한 목자’와는 완전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지만 샅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샅꾼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행복을 우선시하지만 샅꾼은 자신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요 10:6]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요 10: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 10: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 10: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 10: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문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0: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 10:12] 싹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

[요 10:13]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마귀는 영원히 떨어진 지옥불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을 찾으려 인간심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귀의 지상

최대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마귀가 이용하는 절대적인 무기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담의 원죄는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롬 5:17).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짓는 자범죄 역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말끔히 씻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요일 1:7).

[요 10:14]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요 10: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아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사이에 교제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서는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은 목숨까지 버리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도 자녀들과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를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요 10:16]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
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게 든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께서 선택한 백성을 뜻합니다. 하지만 다른 양은 이
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되었듯이 원래 이
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옮기셨던 하나
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이 될 이방인을 생
각하셨던 것입니다.

“[갈 3: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
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
으리라 하였으니.”

오직 이방인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
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 10: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요 10: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
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
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 10:19]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
이 일어나니

[요 10:20]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요 10:21]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
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
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

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큰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고도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일 3: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계명'은 <엔톨레>로서 '명령' 혹은 '계명'의 뜻이 있지만 어떤 위대한 사명을 뜻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 사명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 10:22]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요 10:23]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요 10:24]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

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님께서서는 주로 명절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서는 복음을 전하는 최대의 효과를 생각하셨습니다. 마땅히 오늘날 우리도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사람들 눈요기를 채우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라고 마음 속의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이신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저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것은 마귀가 저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고후 4:4]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누구든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마음이 혼미해진 사람은 결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스스로의 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저들의 마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 10:2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 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어늘

[요 10:26]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 10: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 10:28]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 10:29]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가 완강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달라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신 것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초대 교회에서도 겪었던 이단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놓은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재해석되어지는 아픔이 인간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자유의지까지 허용하지 않으시고 강제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 10: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0:31]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요 10:3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요 10: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요 10: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 10: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요 10: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God)'이었습니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위대한 신이었습니다. 그런 저들의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쉽게 스며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의 전통적인 생각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단순히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단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자신들은 하찮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가리켜 '신'이라고 언급 하셨습니다(34절).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시 2:7]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했기 때문에 “[갈 4: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말은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참람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요 10:37]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요 10:38]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요 10:39]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요 10:40] 다시 요단 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요 10:41]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라 하더라

[요 10:42]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겠지만 지금은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정작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막상 결혼을 했지만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보지 못한 관계로 몇 날을 서먹하게 지내야만 했던 우리 부모님들처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우리를 길러 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이 하나님 앞에 낮은 인간으로만 서게 했던 것입니다. 막상 음성을 들었어도 그 음성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지를 아

무도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 너희도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17: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 17: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이십니다. 이전에도 하나이셨고 지금도 하나이시며 앞으로도 하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이것은 결코 불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하나 됨을 원하시며 우리와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함께하듯 그렇게 말입니다.

요한복음 11 장 =====

[요 11:1]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요 11:2]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습니다. 부모가 없이 나사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이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연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피해 예루살렘 변방에서 기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으로서 요한복음 12장에 언급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즉각적으로 오시지 않음으로 인해 서운해했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

을 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요 11:3]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다 하니

[요 11:4]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यो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 11:5]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요 11:6]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요 11:7]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요 11:8]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요 11: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요 11:10]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나사로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병을 통해 고난을 받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병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질병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질병이 생겼든지 모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고난의 시간이고 시험의 시간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아픔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치유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절박한 소식을 전해 들으셨던 예수님께서서는 곧바로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야 당장에 달려가서 치유해 주시고 싶으셨겠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응답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

리의 기도와 간구는 우리의 때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던 때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위협을 피해 유대 근방에서 기거하고 있으셨습니다. 12장의 향유 부음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1주일 전쯤이었으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십자가 사건과 매우 가까운 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최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요 11:11]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 11:12]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요 11:13]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요 11:14]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요 11:15]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

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
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요 11:16]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왕성한 열기를 가졌
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 이곳
저곳 열심히 돌아다녔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
은 대제사장의 위협이 무서워 밖의 출입을 자제하고
있었을 때 도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저
곳 돌아다녔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도마는 "주와 함께 죽자"라며 용기 있게 나
아갔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았습
니다.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 보고서야 비로소 주님
임을 깨달았던 도마는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
시니라"(요 20:29)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요 11:17]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흘이라

[요 11: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될 때까지 눅장을 부리신 것은 시체가 부패하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단순히 죽은 지 몇 시간 되지 않는 사람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확실하게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베다니는 올리브산 남동쪽 자락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현재는 알에이자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요단강 서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도 이곳에 머무르셨으며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에도 이곳에 계셨습니다 (눅 24:50).

[요 11:19]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요 11:20]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요 11: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 11: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요 11: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요 11:24]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 11: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7]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막연한 종교적 행위로만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도 드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 어떠한 다른 종교도 생명을 부여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도 생명을 주지 못하며 유교도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마르다가 베드로와 같은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신앙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믿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못함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합니다.

[요 11:28]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요 11:29]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요 11:30]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20절). 하지만 마르다가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20절)는 구절이 마리아의 상심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안 계셔서 오빠 나사로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집안의 가장이 죽어 버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상심이 컸겠습니까? 이미 죽어버린 오빠, 더군다나 죽은 지 4일이나 지나버린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셔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생각하면서 그냥 집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말을 듣고선 급히 몸을 일으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마르다로부터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빠를 다시 살려 주시겠다!" 그래서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리아와 같은 희망이 스며들어 오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절망스런 문제 속에서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발걸음에는 얼마나 희망이 가득 차 있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나사로의 죽음만 하겠습니까?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주 작은 믿음일 것입니다.

[요 11: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요 11:32]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요 11:33]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요 11:34]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요 11: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 역시 언니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주

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 나이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안타까움과 원통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마르다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지라도, 막상 주님을 만났을 땐 속마음이 원통함과 눈물로 표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주님께 원통함과 눈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그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의로워서 마치 목이 굳어져 버린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받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찮은 인간의 고통에는 관심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눈물과 주위 사람들의 눈물에 함께

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함께 우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고통을 느끼시며 우리가 흘린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 11:36]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요 11:37]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요 11: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요 11: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요 11: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요 11: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 11: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두려운 무리를 위

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1: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요 11: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벌써 시신의 부패가 시작되어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이는 일부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4일이라는 날 동안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훨씬 응답이 빨리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체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

한 것처럼 이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합 2:14).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줍니다. 예수님은 "[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또한 크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 장 =====

[요 12: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
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
사로의 있는 곳이라

[요 12: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
라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은 내용이 연결된 것이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
서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
께 그 고마움을 표하고자 잔치를 베푼 내용이 12장
에 연결되었지만, 두 장 사이에는 다소간의 기간 차
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장의 시작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표현하
고 있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기 바로 일주일 전이라는 말입니다. 마르다는 잔
치를 준비하느라 여전히 분주합니다. 지금 마르다
가 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 집은 마르다의 집이 아
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과 마
가복음 14장에 나온 마리아 향유 사건을 다룬 기

사에서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시몬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나사로는 문둥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을 기념하여 그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이용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잔치를 베풀고 있는 집이 마르다의 집이 아니라면, 지금 마르다는 남의 집에 와서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잔치 준비하느라 열심히 분주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눅 10:41-42)고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요 12: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 12: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요 12: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 12: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

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흠
쳐감이라

[요 12:7]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
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요 12: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 12:9]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함이라

[요 12:10]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
하니

[요 12:11]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
를 믿음이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 향유
였습니다.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해 오는 귀
한 수입품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결혼을 준비
하기 위해 열심히 나드 향유를 모았습니다. 일종
의 결혼 지참금인 셈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
가 부은 향유의 값이 삼백 데나리온이라고 했습
니다(5절). 마리아의 향유 값어치가 삼백 데나리
온이라는 것은 보통 성인이 300일 동안 일을 한
임금의 액수입니다. 그러니 거의 1년 동안의 임

금이나 되는 매우 큰 값어치의 향유인 것입니다.

그런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주님은 자신의 미래이며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머리의 두건을 벗은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자신의 순결을 상징하는 머릿결로 주님의 발을 닦은 것은 자신의 순결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결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된 마음 때문에 주님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마 26:13)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최선을 다해 받아 주십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리고 향유를 붓고 머리의 두건을 벗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을 때 어쩌면 부끄러움과 창피를 무릅써야만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애써 외면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창피하다며 외면했다면 아마도 마리아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오히려 따뜻하게 마리아의 헌신을 받아 주셨습니다. 가롯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 편을 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헌신하며 나오는 사람의 최선보다 더 큰 최선으로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십니다.

[요 12:12]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요 12: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서 언급된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네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대명절 중 한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최대의 효과를 생각하셨습니다.

[요 12:14]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요 12:15]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위 구절은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스 9: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당시 왕들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권세가 없는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2:16]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

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요 12:17]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요 12:18]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유월절 명절을 맞아 사방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과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맞이했던 것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17절).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맞이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겨우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입으로 왕으로 외쳤던 그 소리가 겨우 며칠 만에 "죽여라!"는 외침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자부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또한 유대인과 똑같은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항상 참경배자를 찾으십니다. 참경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참경배자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맺은 첫사랑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마음을 간직하며 나아갑니다.

[요 12:19]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결국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마셨습니다. 더 이상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느냐"(요 11:50)라는 그의 말이 실현될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알고 계셨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나에 대해 오해하

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무
던히 노력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그것 때문
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식욕도 사라집니다. 억울한
마음이 생겨 그것이 육신의 질병까지 가져오는 사람
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 53: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
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사
야의 말처럼 그렇게 잠잠히 고통의 길을 걸으셨습니
다. 때때로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
다 오히려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 12:2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인 몇이 있는데

[요 12:21] 저희가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
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언급된 '헬라인'은 원래 헬라인이면서 유대
교로 개종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

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러한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청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관심이 있어서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달될 것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은 유대를 넘어 유럽과 전 세계로 전파되었으며 세계 최대의 규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며 주님께서도 그 계획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 12: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요 12: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5]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 12: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심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한 알의 밀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죽어진 우리의 헌신을 통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헌신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함께 보좌에 앉게 해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 3: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요 12:27]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요 12: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중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
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은 듣는 자
와 일대일의 관계로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도 오직 예수님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변형 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막 9:7)는 하나님 아
버지의 음성은 오직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예수님께 하
시는 말씀이기보다는 그곳에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 아
버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
에게 말하였다고도"(29절) 말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을 전해 주신다 할지라도 듣는 자의
영이 열려 있지 않으면 전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음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12:29]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
도 하며 또 어떤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요 12:3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

주님께서 "땅에서 들리면"(32절)이라고 말씀하신 것
은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
께서는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아신 것입니다. 비록 주
님께서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아셨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대로 걸으셨습니다. 어
쩌면 어떤 분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 두려워하고
외면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알고 있으니 두려
움 없이 담대하게 죽음을 맞으신 것입니다. 더군다
나 주님께서 그 쓴 잔을 취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
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요 12:31]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 12: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 12:33]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주님께서 "땅에서 들리면"(32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아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아셨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대로 걸으셨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 두려워하고 외면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알고 있으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죽음을 맞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그 쓴 잔을 취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요 12:34]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

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
냐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심을 믿고 있었
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본인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
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
셨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킨 것이었는데 바리새
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
다.

[요 12:35]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 12: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
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
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 1:4). 누구

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빛에 거하는 자가 되며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 12:37]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
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요 12:38]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
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
으며 주의 팔이 뉘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요 12:39]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요 12:40]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
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
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
려함이니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했던 말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사 53:1]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은 오직 심
령이 열린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전 2:9]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

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10]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 16:17]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2:4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요 12:42]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요 12:43]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관원’이라 함은 이스라엘 공회원을 뜻합니다. 물론 다른 관직에 있는 공직자도 ‘관원’이라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었으므로 공회원 중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공회원을 비롯하여 여러 공회원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믿음을 선뜻 사람들 앞에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43절).

오늘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지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마 10: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요 12:44]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며

[요 12:45]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예수님을 함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
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
된 말씀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아버
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
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히 10:20).

[요 12: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 12:47]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요 12: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 중에는 열심히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지키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새벽 기도, 철야 기도도 모자라 중보 기도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뭔가 부

죽한 듯 느끼고 뭔가 주님께 잘못이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의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나는 결코 저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주님의 이러한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죄를 짓거나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은 구원받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어서 아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구

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큰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 말은 주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단순히 설교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말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대한 심판을 받을 자들은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단순한 선지자로 여기는 자들도 지옥에 갈 것입니다. 주님을 단순한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옥에 갈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요 12: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요 12: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

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담대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해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영생인 줄

아노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3 장 =====

[요 13: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이 순간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이전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죽음을 당할 줄 아시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실 것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실 것입니다(마 28:20).

[요 13: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마귀를 통해서 모든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스

스로 악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저 속에 악한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 당신에게 죄를 범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라기보다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 죄를 짓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마귀를 미워하십시오.

[요 13: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요 13: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요 13:5]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요 13: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요 13: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

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요 13:8]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거부해서도 안 되고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요 13:9]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요 13: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요 13: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베드로는 이왕에 발을 씻어주실 거면 손과 머리도 씻겨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발이 가장 더럽기

때문입니다. 목욕을 하였어도 발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닦아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신 '목욕'은 하나님의 자녀 됨을 말합니다. '발을 닦음'은 날마다 지은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 13:12]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요 13: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요 13: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 13: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주님께서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본이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치유하실 때도, 기도하실 때도, 대화하실 때도, 죽으실 때도 항상 제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처럼 항상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전 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 13: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요 13: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 13:18]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윗의 경험을 들춰서 하신 것입니다. "[시 41:9] 나의 신뢰하는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이다.

[요 13:19]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요 13: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세운 사역자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늘 주님께서는 심오한 영적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마 10:41]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선지자를 영접할 때 반드시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성도들과 목사와의 갈등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저들이 목회자가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사역자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목회자의 잘못된 행위를 보며 “저런 목회자는 목회자도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목

회자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목회자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 13: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요 13:22]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요 13:23]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본문에는 어느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요 19:26]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는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채 언급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무덤으로 뛰어간 두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였습니다(요 20:2-3).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는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안드레와 사도 요한, 그리고 야고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도 요한의 이름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밝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은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였습니다(요 1:40).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이바의 집에 들어갔을 때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지만,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인지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요 18:15). 바로 그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만찬식 때에도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것이고(23절), 베드로는 그를 가리켜 "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언급했던 것입니다(요 21:20). 이처럼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자의 모습이 요한복음 여러 곳에 언급된 것은 그가 요한복음의 저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글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 13:24]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요 13:25]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요 13:2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찢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찢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요 13:27]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 13:28]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앓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요 13:29]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느 줄로 생각하더라

[요 13:30]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

라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가롯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의도를 버리지 않고서 이를 실행에 옮길 마음이 확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 사역의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재정을 맡다 보니 돈에 대한 욕심이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생겨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에도 그것을 돈으로만 계산하고 꾸짖었던 것을 볼 때에도 가롯 유다는 돈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성경은 "[딤후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 13:31]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요 13:32]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

리니 곧 주시리라

[요 13:33]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요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십계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출 20장).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재압축 시키셨습니다 (마 22:37-40). 그런데 또다시 주님께서 이 두 계명을 한 계명으로 압축시킨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율법은 '사랑'에 의해 이뤄짐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계명은 '형제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 13:36]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

나이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오리라

[요 13:37]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 겠나이다

[요 13:3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 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정확히 세 번 부인하 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인간의 약속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에 실수가 있고 믿음을 지키 기가 힘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합니 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 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자 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지만 성령님 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그러한 수치를 극복할 수 있

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 장 =====

[요 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천국에는 우리가 거할 처소가 많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전 15:40]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고전 15:41]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천국에 대하여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강하게 체험하는 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행복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으며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영광은 마귀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다르듯 하늘의 영광도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의 영광이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영광 또한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바울은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성이 있는 말입니다. 해의 영광이라고 해서 해에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달의 영광이라고 해서 달나라에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바울은 해와 달과 별을 이용해서 하늘의 영광이 서로 다름을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별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

도로 많습니다. 하늘의 등급이 이처럼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처소를 준비하고 나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천국의 거처는 상급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상급이 많은 사람은 상급이 적은 사람보다 더 좋은 거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불만을 표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좋은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이 큰 사람은 상급이 작은 사람보다 당연히 합당한 거처를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 11: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 14: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

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약속인지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살전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전 4:17]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처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처소보다 훨씬 아름답고 좋은 것일 겁니다. 이 땅의 아름답고 멋진 처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으며 배고픔도 없을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도 없을 것이며 죽음의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요 14:4]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요 14:5]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시며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아는 것이 진리이며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히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 14:8]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요 14: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께서는 제자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만난 사람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요 14: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 14: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으며 너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알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지만, 특별히 13장부터 17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님, 나'와의 삼위일체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종교적인 의식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는 말을 들으면 저들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고전 3:16). 우리 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 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 28:18).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그것이 가능한 절대적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행 10: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사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돕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신 '기도'는 영의 기도였습니다(막 9:29).

[요 14: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 14: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테오'<aijtevō>인데, 단순히 묻는 것보다 뭔가를 '요구하다'<demand>'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러한 간구는 '선포'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

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약 4:7). 주님께서는 "[요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스스로 '보혜사'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혜사'는 위로자, 격려자, 변호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보혜사'로 함께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죄를 지은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는 것일 뿐입니다. 사울 왕의 경우처럼 (삼상 16:14) 사람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영을 취할 때 성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성령님을 찾고 동행해야 하는 무대

와 같습니다.

[요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 14: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떠오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요 14: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14: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
희도 살겠음이라

[요 14: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언급하신 '그 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때를 말합니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비로소 우
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주님
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시는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
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요 14:22]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
여 자기를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
하려 하시나이까

[요 14: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
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곳에 언급된 '유다'는 가롯 유다가 아닌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눅 6:16).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라고 질문한 것은 그의 생각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말에 대해 영적인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유다는 육적인 것을 여쭙지만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생각하는 세상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지만 예수님의 세상은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신 것입니다.

23절 말씀은 28절 말씀과 연결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금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내용을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14: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내용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큰 능력을 갖게 된 이유였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요 8:28] ...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 14: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

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모
든 말씀을 해석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
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오직 영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
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의 하나는 '
평안'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

네>인데, 이 단어는 원래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평안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살펴보면 항상 뭔가 외부적인 사건이나 사람에 의해 발생합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을 때도 평안을 잃습니다. 죄를 지을 때 주님과와의 관계에서도 평안함이 없어집니다. 이처럼 평안은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모든 외부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스스로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질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짊어지시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 대신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요 14:28]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다 마련하신 후에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 장 =====

[요 15:1]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요 15:2]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요 15:3]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농부) 이러한 가지들을 제해 버리십니다. 또한 과실을 잘 맺는 가지는 오히려 깨끗하게 함으로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과실’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

를 말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거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려져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 비유하셨습니다. 가지가 살려면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밖에 버려지고 불에 던져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에 던져지는 것은 지옥 불에 떨어짐을 말합니다.

[요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8]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 15: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무슨 뜻 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두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합니다. 모세의 홍해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지만 저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요 15: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 15: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 가지 계명으로 압축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롬 13: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 15: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

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14]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 15: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친구'라고 여기신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친구라고 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 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상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 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 15:1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

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 15: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 15: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보다 주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 15:20]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요 15:21]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 15:22]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

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
느니라

[요 15: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
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오직 주님을 믿고 안
믿느냐에 달렸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과도 같습
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주님을 잘 이해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지옥의 판결
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 15:24]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너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
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요 15:25]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
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 15: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
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 15: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 하였고"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자는 구원 받지 못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굳이 율법에서 그 말씀을 찾는다면 시편 35:19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혜사 성령님이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아직도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가장 확실히 증언해 주실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듣지 못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6 장 =====

[요 16: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
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요 16:2]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요 16:3]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요 16:4]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
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요 16:5]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요 16:6]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때 저들은 오히려 하나
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그 대표적입니다. 저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증오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집안의 가족이 예수님 때문에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 16:7]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 16: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 16:9]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 16: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요 16: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제자들은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9절). '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10절).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말합니다. 세상은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따르는 자는 세상 임금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11절).

[요 16: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요 16:13]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

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 16:15]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
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14절).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히 1: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지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15절).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것만을 전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요 5:19).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유지 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러한 관계가 잘 유지될 때 비로소 온전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요 16: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요 16:17]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
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
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
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요 16:18]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
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
거늘

[요 16:19]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
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요 16: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요 16:21]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요 16:22]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킨 것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은 부활하심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잠시의 이별과 슬픔이 있겠지만, 다시 만나는 기쁨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고난의 시기를 지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 16:23]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

로 주시리라

[요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믿음을 두지 않고서 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기도와 간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며, 그 통로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위대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요 16:25]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요 16:26]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요 16: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주로 비사(은유)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인 저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해였습니다. 비록 저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지만 현실적으로 주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힘을 당하셨을 때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요 16:28]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요 16:29]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요 16:30]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삽나이다

[요 16:3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과 저들의 삶은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들의 모습은 마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과 삶의 관계에서 너무나 다르게 동떨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 16: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 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쏘는 고통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 장 =====

[요 17: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 17: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요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 17: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영생’은 구원을 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에 의해 이뤄집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요 17: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 17:7]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요 17: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 17:9]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
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요 17: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
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
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
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
해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뜻합니다. 오
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요 17: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
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관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
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과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의 관계,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때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신 부분은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 17:11)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이시듯,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시라는 간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요 17:12]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요 17:13]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걷어가신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윗 구절은 12제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믿는 모든 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영적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오직 '멸망의 자식'들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요 17: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 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요 17:15]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 17: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요 17:17]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는 고통이 따르고 핍박이 따릅니다. 이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받을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그 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 17: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요 17:19]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요 17: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 17: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 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3]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 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주님-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 17: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 17:25]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삽고 저희도 아버지

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나다

[요 17: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모든 믿는 자는 스스로의 지식이나 의지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허락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여서 주님께서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 3:21),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엡 2:5-6).

요한복음 18 장 =====

[요 18: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요 18:2]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요 18:3]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들에게서 얻은 하숙들을 데리고 등과 화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요 18:4]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요 18:5]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
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다가왔습
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13-17장)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
다.

‘군대’는 한 부대에 해당되는 600명 정도의 로마 군
인이나 아니면 200명으로 구성된 보병중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이에 군대

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라고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이 언급될 정도이니 당연히 상당히 많은 군인이 투여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속'은 단순히 하인이라기보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등'은 등불을 의미하며 '햇'은 햇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군대를 파견한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어린양처럼 말없이 저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요 18:6]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저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 것은 예수님을 경외하거나 예의를 갖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잠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저들이 뒤로 나가 자빠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만 달리 생각하신다면 그 정도 군대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일부러 보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인간의 구원

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 18:7]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요 18: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요 18:9]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요 18:10]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요 18:11]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성경 말씀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허락하

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시키실 것입니다.

[요 18:12]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요 18:13]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요 18:14]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러라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유대인의 종교를 인정한다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정책을 취하였지만 대제사장의 제도를 돈으로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저들의 종교성에 문제를 일으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론으로부터 오직 죽음만으로 대제사장 자리가 대를 이어 존속되어져 왔던 대제사장의 대물림이 이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요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 자리는 더 이상 종교적인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요직으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많음으로 해마다 대제사장 자리를 돌아가며 차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하지

만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가장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 가신 것은 예우상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안나스는 가아바의 장인이었고 비록 가아바가 그 해 대제사장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장인인 안나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 18:15]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 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요 18:16]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 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요 18:17]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 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 되 나는 아니라 하고

“또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됩니다. 왜냐 하면 요한복음에는 여러 차례 제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두 제자의 이름 중 한 제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으며(요 1:40),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마지막 날 만찬 때 주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주의 사랑하는 제자의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요 13:23). 그

런가 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달려간 두 제자 중의 한 제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요 20:3). 또한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의 이름 역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요 21:7). 본문에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자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요 18:18] 그 때가 추운고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쪼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쪼더라

'그 때'는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아빱월(니산월) 14일이었기 때문에 양력으로 계산할 때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경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여 낮은 40도가 넘게 덥지만 밤에는 매우 추운 날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웠던 것'입니다.

[요 18:19]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요 18:2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요 18:21]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

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요 18:22]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요 18:2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대제사장의 하속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 같이 대답하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속이 보기엔 예수님보다 대제사장이 더 큰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에게 무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예수님보다 더 큰 줄로만 알고 세상을 따릅니다.

[요 18:24]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요 18:25]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쪼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

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요 18:26]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요 18:27]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
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
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
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
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
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 26:75).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음을 늘 경계해
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지 모
르나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는 그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시인함으로써 내 입지가 곤란해지
고 나의 것이 손해를 보고 목숨의 위협이 있을 땐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과
의 사랑을 확인하고 세상을 좇기보다는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 18:28]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새벽’은 로마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새벽 3-6시경쯤 되는 시간입니다. 안나스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 관저에 가기까지 유대인들의 심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보다 자세한 유대인의 심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유대적 심문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쓰고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집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보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31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관정에 끌고 갔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은 깨끗하게 지키고자 했 으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멸시했던 것입니다.

[요 18:29]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

냐

[요 18:30]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 18:31]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 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요 18:32]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평소에 오만하고 거만한 성격을 가졌던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과 재판과정을 함께 합니다. 빌라도가 관정에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폭동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에는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요 18:33]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 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 18: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요 18:35]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요 18: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마귀)의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일 5:19).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저 육신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이 우리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만큼은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요 18:37]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

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
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
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
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요 18:38]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
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요 18:39]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
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
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요 18:40]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
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러라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
례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원
치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죄인 바라바를 원했습니
다(39절). 빌라도는 총독의 신분으로 백성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풀어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인의 폭동을 두려
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듯
빌라도가 유대인의 폭동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불법적인 재판을 행하였던 것이고 당일에 유

죄 판결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원래 재판은 낮 시간에 행해져야 했으며 재판 당일에는 사형집행하는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 장 =====

[요 19:1]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요 19:2]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요 19:3]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요 19:4]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요 19:5]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으로다 하매

빌라도는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군인들도 합세하였습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며 자색 옷을 입히며 온갖 조롱짓을 가했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신 예수님께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며 왕들이 입던 자색 옷을 입혀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인들로 인해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온갖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신 채 맞으셨습니다. 군인들의 손이 가는 대로 예수님의 얼굴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갇은 고난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화를 내시거나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잠잠히 때리는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셨을 뿐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사 53: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치욕적인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참을 수 있으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때린 사람은 어쩌면 빌라도와 군인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때린 것입니다.

[요 19:6]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요 19:7]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
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
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해달라고 외쳤
던 배후에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인 백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음
모에 말려들어 예수님을 향한 증오심이 커져갔던 것
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던
것은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
겼던 것입니다.

[요 19:8]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요 19:9]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
는지라

[요 19:10]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
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
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 19:1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

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을 해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해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저들의 삶에서 거의 20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저들이 예수님께 행했던 최악의 형벌을 극심하게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저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천국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 19:12]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요 19:13]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요 19:14] 이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육

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
로다

[요 19:15]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
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
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
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요 19:16]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
게 넘겨주니라

유대인들은 절대로 다른 나라 왕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민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
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를 자신의 왕으로 삼겠
다는 고백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극악한 죄인 것
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옥불의 고통이
자신의 것인 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을 영접하
지 않는 것입니다.

[요 19:17] 저희가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
는 곳에 나오시니

[요 19:18]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해골’이라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언덕이 매우 높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요 19:19]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요 19:20]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요 19:21]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요 19:22]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써

십자가에 붙히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바깥 쓰길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며 고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폭동을 염려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받게 했지만 그의 마음엔 원치 않은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요 19:23]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찢는 것이라

[요 19:24]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십자가 형을 당하는 죄인의 옷은 군병들의 몫이었습니다. 일종의 부수입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눠 각각 나눠 취하였습니다. 주님의 속옷은 통으로 찢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될 때는 옷이 벗겨지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

조물인 인간들 앞에서 당하시는 수치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 22:18)의 성경 말씀을 응한 것입니다.

[요 19:25]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몇 여인과 그의 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모친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곳에서 언급된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바'는 세베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세베대는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입니다. 만약에 세베대의 아내가 마리아의 자매라면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척 지간인 셈입니다. 이곳에 언급된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곳곳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제자가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으며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일부러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요 19:26]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요 19: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 19:28]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의 안위를 배려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 요셉이 이미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 요셉이 살아 있었다면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자는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죽었으며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았으므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지간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탁은 훨씬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요 19: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

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
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요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
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
아가시니라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
시웠사오니” (시 69:21)라는 성경 말씀을 응하신 것
입니다.

십자가의 형은 형벌 중 가장 극심한 고통을 갖게 하
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잊도록 돕기 위해 신
포도주를 죄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께서는 저들이 준 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
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
니하시니라” (막 15:23).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마
시지 않으신 이유는 죽음의 고통을 최후까지 느끼시
며 인간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싶으셨
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크신 사
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군병들은 거의 죽
어가는 예수님께 일부러 신 포도주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요 19:31]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요 19:32]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요 19:33]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날은 예비일’이라고 말한 것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비일이라고 해서 유월절 예비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유월절은 성만찬식 할 때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이었으며 그 때는 무교절 첫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시체 거두는 일을 할 수 없기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시체를 치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숨이 거두셨으므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 19:34]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 19:35]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 19:36]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은 이미 주님께서 숨을 거두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청과 물이 분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물은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구원을 상징하며 주님의 물은 정결을 상징합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있어야 하는데 주님이 피를 통해서 아담의 원죄가 벗겨진 것입니다. 주님의 물을 통해 우리의 자범죄가 날마다 깨끗케 될 것입니다.

이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 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민 9:12)

[요 19:37]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옆구리를 찌르는 내용에 대한 성경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 12:10)

[요 19:38]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 19:39]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온지라

[요 19:40]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 19:41]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요 19:42]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비밀제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과 산헤드린 공회원 자리를 박탈당하는 것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에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빌라도 앞에 나아가 시신을 달라 했습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에는 엄청난 갈등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오히려 잠잠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 자신이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사람들 앞에 주님의 제자됨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 앞에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가족들 앞에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직장에서 해고 당할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목숨을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밝히길 꺼려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니고데모 역시 주님의 비밀제자였습니다. 그 또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눈을 피해 몰래 밤에 주님을 만나러 왔던 자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 역시 사

람들 앞에 주님의 제자됨을 밝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 장 =====

[요 20:1]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토요일) 오후 6시까지
지킵니다. 그러니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말하는 것
입니다. 기독교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지 아니하고
일요일을 주일로 삼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을 가
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 20:2]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
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요 20:3]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요 20:4] 둘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 20:5] 구푸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

지는 아니하였더니

[요 20:6] 시몬 베드로도 따라 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요 20:7] 또 머리를 씻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
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요 20:8]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
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고했
을 때 두 제자가 황급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
드로와 사도 요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단지 ‘
사랑하는 그 다른 제자’라고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동시에 무덤을 향해 달려갔지
만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런
데 베드로는 사도 요한보다 늦게 도착했지만 생각할
여유도 없이 곧장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시
신이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요
한처럼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베
드로처럼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19:9]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구약의 어느 구절이라고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삼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안에 삼일 있다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 19:10]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만 확인했을 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자신들의 고향 집으로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자기들의 고유한 집'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을 굳이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들의 집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

나지 못하면 세상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사역지로 달려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곧장 제자들의 숙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천사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눅 24:8]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눅 24:9]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고하니 [눅 24:10]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하지만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두 제자가 실제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는 대략 120km이고 보통 성인의 하루길은 20km이기에 대략 6일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가 비어있는 무덤을 방문했던 바로 그 날 저

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불과 몇 시간 내에 갈릴리 고향 집을 갔다 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막 16:14] 그 후에 열 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요 20: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푸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요 20: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요 20:13]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생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달랐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생전에 가까이 주님을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으니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 20: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요 20:15]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
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
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요 20: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
라)

[요 20: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
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
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요 20: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다 이르니라

천사의 증언이 있고 난 후에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
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는 가장 처음
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동산지기인 줄 착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며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제야 주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이미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눅 24:5]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눅 24:6]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눅 24:7]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눅 24:8]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눅 24:9]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고하니라."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보통 사람보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까지 육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변화되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매우 낯선 것이었습니다. 이는 육적인 주님과 영적인 주님의 차이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육적인 주님과 만남으로만 산다면 영적인 주님과 만남은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결코 주님은 육적으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대부분 육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비단 막달라 마리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눅 24:36]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하시니 [눅 24:37]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께서 육신으로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영체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마치 귀신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영적인 주님과

만남을 어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눅 24:38]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눅 24: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영적인 주님과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친근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자국이 나 있는 손과 발을 보여주신 것은 육신의 주님과 영적인 주님을 헛갈려하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러한 육신의 흉터나 상처 입은 손과 발의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손을 잃고 발을 잃은 사람도 부활할 때는 온전한 육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주님과과의 만남만이 최상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주님과과의 만남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주님과과의 만남이 우리의 육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육적인 주님과과의 만남을 최상의 만남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삶은 육적인 삶에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육적인 눈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바라보게 될 것이며 육적인 입이 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육적인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주님과 만남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이제 주님의 동행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온전하시듯 우리 또한 온전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요 20: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 20: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 20:21]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잡아오라 명령을 내렸고 그렇게 붙잡힌 사람

은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두려워 떨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었지만 주님께서 벽을 통과하시어 들어오셨습니다. 부활의 몸이 영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공기처럼 형성된 영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무엇보다 평강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은 근심 걱정을 없애주며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직접 나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못 자국과 창 자국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주님인 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몸이 그렇게 몰라볼 정도로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 세상에서 질

병으로 고통으로 당하고 육신의 불편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변화된 모습은 참으로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요 20:22]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 20:23]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불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가장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님'을 불어 넣어주게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성령님이나 오순절 날 임하였던 성령님은 모두 같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허락하신 성령님은 저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 성령 하나님의 권세를 지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능으로 사람의 죄를 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저주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큰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께 형제의 죄를 사해 달라고 간구할 때 바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의 병을 치유하는 권세도 있으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 20:24]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요 20: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도마에게 전했지만 도마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때는 제자들이 밖의 출입을 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붙잡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안에 떨면서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혼자서 밖으로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분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약했던 것입니다.

[요 20: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요 20: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 20:28]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요 20: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 때도 첫 번째 방문처럼 "평강이 있을찌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에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의 못 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 자국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는 늘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하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질은 봐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져야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29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20:30]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이니라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에 대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글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
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처음 주님을 만나
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성경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 장 =====

[요 21: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14절). 장소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요 21: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제자들 중 여러 제자가 함께 모여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갈릴리 바다로 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고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피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저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 21:3]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니 제자들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피해 숨어 지내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지만 저들이 고기잡이를 했던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인생에서 방황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뭔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21:4]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요 2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요 21:6]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

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저들은 오른편에 수십 번도 더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던지라고 했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요 21:7]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겹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요 21:8]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오십 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요 21:9]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요 21: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베드로는 옆의 제자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겹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수영을 하려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는지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대충 하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의 모습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요 4:23)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십 간쯤'이라는 거리는 약 100미터쯤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00미터 거리를 거침없이 수영해서 주님께 갔던 것입니다. 사실 100미터는 배로 가도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수영해서 간다고 해서 배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기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 21: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일백쉰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 21:12]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요 21:13]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
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요 21:14]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신 후에 세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물고기 수가 153마리였습니다. 언급된 물고기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153마리에 대한 보다 확실한 해석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요 21:15]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

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
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 21:16]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
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
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 21:17]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
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
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차례에 걸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곳에 언급된 '사
랑'은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 두 가지가 사용되
었습니다. 처음과 두 번째 사용하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고 세 번째 '사랑'은 필레오 사랑을 사용하
셨습니다. 물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였기 때문에 헬라어적인 사랑의 구분이 없이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사랑'이라는 단
어가 한 가지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세 번의 '사랑' 언급에 대해 이처럼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을 구분하여 사용한 것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랑을 언급하였지만 베드로는 세 차례 똑같은 사랑을 반복해서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 모두 필레오 사랑을 말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역시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고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사용한 필레오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질문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의 지극한 사랑과 배려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연달아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받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가페 사

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 이 베드로 마음에는 부끄러움과 죄스런 마음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주님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심령을 보시고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러한 세 차례 질문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필레오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친구의 우정입니다.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입니다.

[요 21: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 21: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19절). 비록 외경이긴 하지만 베드로행전에는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 도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사역을 계속 수행합니다. 그러다가 체포를 당한 후에 십자가 형을 당하게 되는데 처형 당할 당시에 "내가 주님처럼 어찌 똑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하며 거꾸로 십자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음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약전서에는 오직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의 성품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정결과 거룩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수석제자로서 능력 있는 사역을 수행했으며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는 기원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삼게 되고 오늘날의 천주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교회는 세워졌으며 주님의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오늘날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요 21:20]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러라

[요 21:21]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삽나이까

[요 21:22]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 21:23]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하신 것이니라

[요 21:24]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요 21:25]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여러 차례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도 요한의 존재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나 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관심은 사도 요한에게 향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냉정하고 쌀쌀맞은 대답 같지만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옳으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운했을까요? 자신은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지만 사도 요한은 죽음조차 당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사역할 마음조차 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험난한 인생을 오직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옆 사람을 의식합니다. 부인은 남편을 의식하고 남편은 부인을 의식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의식하고 교인이 다른 교인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게 되면 오히려 큰 힘과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의 종류

예수님 당시의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에는 오직 한 가지의 '사랑' 단어밖에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하나의 '사랑'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도 오직 하나의 '사랑' 단어밖에는 없습니다.

하지잠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듯 네 가지로 구분된 것은 헬라 철학 사상이 반영된 것일 뿐 일상생활에서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듯 '사랑'이라는 종류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사랑'의 정의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1.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빗의 영맥주석(David's Commentary): 요한복음

초판발행	2026. 2. 25
지 은 이	데이빗리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대어빌리 회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영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